



Vol.13 2010

시흥문화

SIHEUNG culture



시흥9경의 하나인 월곶 귀항선



관곡지(官谷池)에서

-임경묵(시인)

어둑발 내리길 기다려
연못에 몸을 푸는 달빛
달빛의
허리가,
가슴이,
어깨가,
젖는다
오랜 궁리였다는 듯
(白蓮) 흰 귀가 붉어진다
연못이 파르르 떨린다

임경묵 2006년 제8회 수주문학상 대상 / 2008년 제60회 문학사상 신인상 / 소래문학회원

지역의 정신문화 방향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어느 해가 다 그렇듯 2010년에도 다양한 일과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원으로서도 틀에 박힌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사와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산지식은 앞으로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시대에 맞게 년중 진행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정착과 지속적이고도 고유한 문화사업의 전개, 그 외 뜻있는 사업들이 2010년에 있었습니다.

3월 1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독립운동가 윤동옥 선생의 기념비제막식이 있었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시흥시에서 열렸습니다. 남북교류 해외개최사업공모선정으로 필리핀 한비문화축제에 공연단을 파견하여 성황리에 마치고,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과, 문화관광부 후원의 향토사대 중화사업 및 지역명예교사사업 선정 등 어느 해보다 숨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 가는 역사문화탐방을 기획하여 자녀와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였고, 산사랑 역사사랑 산악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때로는 기대이상의 기쁨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시행착오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흥문화’ 13호에 이러한 문화원의 의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방문화원이 양적인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 정신문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다양한 의견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한 201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정 상 종 시흥문화원장

가슴으로 전해져 문화적 역량 쌓아 나가는 디딤돌 되길



시흥문화원의 『시흥문화 13호』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흥문화 13호』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의 지역축제, 민속행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상중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문명의 발전을 가져와 이제는 지구가 1일 생활권이 되어가는 이때에 세계의 국가들은 저마다 자기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흥시만의 정서와 특색이 담긴 전통문화의 발굴과 재현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며, 국제적 행사인 필리핀 한비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등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는 폭넓은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의 영역을 확대하며 차별화된 고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흥문화원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시흥문화 13호』의 발간이 우리 것을 찾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시흥의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져 문화적 역량을 쌓아나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며,

2010년 한해의 문화활동을 정리한 『시흥문화 13호』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11년 1월

김 윤 식 시 흥 시 장

전통문화 혼과 희망 메시지 전달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 기대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시흥문화」 제 13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2만 시흥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아름다운 시흥문화를 꽃피우고자 힘쓰고 계시는 정상중 시흥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제 13호가 발간되기 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문화」는 우리 시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활동을 알림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전통문화의 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는 사회발전을 주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며, 그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의 보급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업화, 도시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시흥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한편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시흥문화원의 역할이 그 만큼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살리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문화의 중심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장 재 철 시흥시의회 의장





CONTENTS

002 여는 시

003 발간사

004 축간사

화보

008 효-愛너지 페스티벌

008 제 17차 정기총회

009 지역명예교사사업

009 향토사대중화사업

010 제 19회 연성문화제

011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011 시흥단오제

012 제 8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013 정월대보름 행사

013 전통성년의례

014 문화원장기 공도대회

014 윤동욱선생 기념비 제막식

015 군자봉성황제 및 유가행렬

016 어르신 역사문화탐방

017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전국대회 참가

기획특집

019 한비문화교류

024 아빠와 함께 가는 역사문화탐방

학생 미술공모전

029 시흥단오제 / 연성문화제

문화탐방

034 계룡산 산행기

036 서산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

041 경주 양동마을

문화의 현장

049 시흥의 상여소리

058 교향악단

테마기획

062 아름다운 이별학교

065 신 시흥인

068 소산서원

072 건강가정지원센터

076 희망마을 만들기

시흥명소

080 월곶포구

084 도일시장

086 오이도

산책

091 늑내길 제 4코스 바람길

09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교육의 현장

099 장곡고등학교 10주년

현장스케치

103 어부

106 연탄을 찾는 이유

시흥리포트

109 시화호 해양레저 도시

112 어둠을 준비하는 호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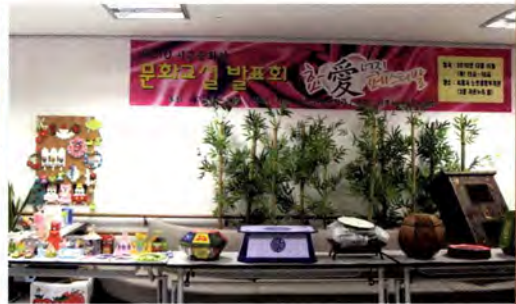
학생 글짓기 공모전

114 시흥단오제 / 연성문화제

128 시흥문화원 문화강좌 안내

문화교실 발표회 '효-愛너지 페스티벌'

- 일시 : 2010. 12. 16.(목)
- 장소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 내용 : 문화가족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아 펼치며 어르신들 비록 하여 3세대가 함께하는 효와 사랑의 장을 마련하였다.



시흥문화원 제 17차 정기총회

- 일시 : 2010. 2. 4.(목)
- 장소 : 팰리스웨딩홀컨벤션뷔페
- 내용 : 시흥문화원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의안을 심의하였다.



지역명예교사 사업



- 기간 : 2010. 9월~11월
- 내용 : '박일엽 명창과 함께 하는 서도소리, 만선의 꿈 시흥바다' 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우리고장의 전통가락을 교육하고 소리극 공연을 선보였다.



향토사대중화사업

- 기간 : 2010. 4월~12월
- 내용 : 능곡중학교와 협력해, 체험하고 느끼며 재미있는 향토문화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UCC타고 시흥 속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제 19회 연성문화제

- 일시 : 2010. 10. 16.(토)~10. 17.(일)
- 장소 : 정왕동 이마트 앞 공원
- 내용 : 시흥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시민참여 공연과 '연성의 시작 강희맹 사신단 재현' 등을 통해, 시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냈다.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 기간 : 2010. 3월~11월
- 내용 : 2009년 어르신으로 결성된 잉벌노 밴드가 지역의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 다니며 공연을 통한 문화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흥단오제

- 일시 : 2010. 6. 12.(토)
- 장소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 내용 : 단오의 의미를 되살려 시민들과 어울림마당으로 발전시키고자 창포체험 및 학생 글짓기·미술대회 등을 마련하였다.



제 8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 일시 : 2010. 9. 9.(목)~9. 10.(금)
- 장소 : 시흥시체육관
- 내용 : 경기도 31대 시군의 청소년들이 각 지역의 전통예술을 선보이고 겨루는 본 대회를 시흥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양주시의 '양주들노래'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월대보름 행사



- 일시 : 2010. 2. 27.(토)
- 장소 : 포동운동장
- 내용 : 민족의 고유명절 정월대보름 한마당으로 전통놀이체험행사, 윷놀이·제기차기 대회, 달집태우기 등이 열렸다.



전통성년의례

- 일시 : 2010. 6. 12.(토)
- 장소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 내용 : 시흥예명원과 협력하여 성년을 맞는 대상자에게 성년됨의 진정한 의미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원장기 궁도대회

- 일시 : 2010. 9. 25.(토)
- 장소 : 시흥정
- 내용 : 호국무예 궁도의 정신을 기리고자 관내 7개정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황현정이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윤동옥선생 기념비 제막식

- 일시 : 2010. 3. 1.(월)
- 장소 : 산현동 윤동옥선생 묘소
- 내용 : 항일 애국지사 윤동옥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시민의 힘을 모아 3.1절을 기념하며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군자봉성황제 및 유가행렬

- 일시 : 2010. 11. 8.(월) - 음력 10. 3.
- 장소 : 군자봉 정상 및 구지정 마을
- 내용 : 마을의 안녕과 시흥시 및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군자봉성황제가 천여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어르신 역사문화탐방

- 일시 : 2010. 4. 3.(토)
- 장소 : 강원도 횡성
- 내용 :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을 모시고 떠나는 역사문화탐방으로 강원도 횡성의 회다지소리 축제와 여주 신륵사를 탐방하였다.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전국대회 참가

- 대회명 : 2010 지영희 국악대제전 전국농악 경연대회
- 일시 : 2010. 10. 8.(금)~ 10. 9.(토)
- 장소 : 평택호 상설무대
- 내용 :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드높이고자 지역의 대표 민속놀이인 시흥월미두레 풍물놀이로 참가하여 대상(경기도지사 상)을 차지하였다.



기획특집

■ 한비문화교류

■ 아빠와 함께 가는 역사문화탐방



한·베

문화교류

글 | 박미영

한비문화축제를 다녀오다.

필리핀 공연단 취재기자로 다녀오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선뜻 따라나서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며칠은 밤마다 고민을 했다. 해외 취재경험이 없던 것도 그렇고 문화원에서 원하는 만큼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김홍건 당시 문화원 사무국장님을 만나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마다 인터넷을 여행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준비해 나갔다.

출발 당일 일찌감치 공항으로 출발하여 여유 있게 비행기에 올랐다. 1시간 50분이 지나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필리핀 한인회측에서 꽃다발을 준비해 일일이 목에 걸어주며 환영해 주었다. 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붐비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비까지 내려 이동할 차량까지 탑승 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파사이시티 메트로 마닐라 필름센터 리허설과 본 공연

이튿날 서둘러 공연장인 파사이시티 메트로 마닐라 필름센터로 향했다. 공연은 오후였지만 오전에 공연팀 리허설과 필리핀 현지 방송국에서 정상중 문화원장님의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



거리공연 모습

둘러 출발을 한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전통연희단 꼭두쇠 멤버들은 어느새 공연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리허설에 열중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막내 정의범군은 공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몸이 좋지 않아 다들 걱정을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밖을 살펴보니 어느새 관람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한인총연합회 주최라 한국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필리핀 청소년들이 많았다. 시간이 갈수록 인원은 점점 늘어 어느새 객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다.

한비문화축제는 1992년 필리핀에 한국 교민들이 많지 않던 시절 한국과 필리핀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작은 장기자랑 행사로 시작된 19년의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인은 필리핀의 노래와 춤으로, 필리핀인은 한국의 노래와 춤으로 숨쉴 거론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약 400명의 예선진출자 중 두 번의 예선을 거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발되었다고 한다.

본선에는 필리핀 5팀, 한국인 3팀 총 8개 팀이 참가하여 뛰어난 노래실력과 무대매너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참여한 팀 모두 커다란 박수를 받으며 열창했다. 그중 필리핀의 슈퍼 주니어라 불리는 X-크루팀은 거의 팬클럽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특별초대 공연으로 시흥을 대표하는 전통연희단 꼭두쇠팀의 풍물놀이와 시흥서도 소리보존회팀의 청기민요, 한국무용 '한량무'가 공연되었다. 전통연희단 꼭두쇠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강렬함과 부드러움, 빠르고 느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관객들과의 조화로운



◀꼭두쇠 팀의 풍물놀이 공연 모습

▼한량무 공연 모습



소통을 이루어내는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참석한 관객들 모두에게 신명을 이끌어내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전통선비들의 도포와 갓을 쓰고 추는 멋과 풍류가 묻어나는 '한량무'를 월곡중학교 1학년 정의범 군이 멋들어지게 표현해냄으로써 교민들은 물론 필리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시흥서도소리보존회 회장이면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이수자인 국악인 박일엽명창과 그 문하생 김미령은 '노랫가락'과 '청춘가', '아리랑'을 불러 교민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우리가 준비해간 공연이 모두 끝난 후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고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류로 k-pop에 대한 필리핀 청소년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더불어 이런 문화교류의 기회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아드리아티코 씨클 거리 공연

마지막날은 필리핀 젊음의 메카인 '아드리아티코 씨클' 광장에서 필리핀 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공연을 펼치기 위해 이동했다.

거리 공연 모습



아드리아티코는 마닐라시, 그중에 말라테라는 지역의 한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닐라시란 필리핀의 수도가 아닌 그 수도를 이루는 7개 중 한개의 시를 말한다. 필리핀의 수도의 공식 명칭은 메트로 마닐라 (Metro Manila) 이다.

마닐라시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곳으로 레미도스 스트리트 (Remedos St.) 과 아드리아티코 스트리트 (Adriatico St.) 이 만나는 곳에 레미도스라는 이름의 작은 원형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차도로 원을 그리며 씨클을 만드는데 이곳을 아드리아티코 씨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미도스 씨클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씨클을 중심으로 카페, 바, 라이브클럽, 레스토랑, 가라오케 등이 모여있는데 이 일대를 아드리아티코라고 한다.

아드리아티코는 외국인의 거리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어서, 이곳으로 이동해 풍물놀이 공연을 할 계획이다.

오늘 공연은 관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연이어서 더 의미가 있기도 하다. 길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 경찰의 호위까지 받으며 행진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풍물놀이에 필리핀 사람들은 다소 낯설어하는 모습들이고 한편 신기해하며 길놀이의 뒤를 따르다 어느덧 함께 공연을 즐기는 모습들이 음악은 언제 어느 때이고 한마음을 만들어 소통을 하도록 해준다.

특히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장단에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제법 그럴싸하다. 현지 사정으로 공연장소가 다소 미흡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다음번에는 좀 더 큰 무대에 올라 한판 크게 놀아보길 기대해본다.

코피노 칠드런 센터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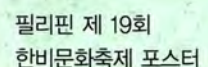
이번 필리핀 방문의 또 하나의 목적은 코피노 가정의 아이들의 방문이기도 했다.

코피노는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반쪽의 한국인을 일컫는 단어이다. 대부분의 코피노들은 미혼모인 엄마 밑에서 자라며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 속에 성장하고 있다.

이날 특별 초청된 '코피노 칠드런 센터' 학생들은 한국민요에 맞춰 소고춤을 공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곳 '코피노 칠드런 센터'는 4년전 손범식 원장이 주축이 되어 만든 곳으로 현재는 김순희 원장이 필리핀 아이들 24명을 돌보고 있다.

필리핀교민 자원봉사자 7명, 교환 대학생 7명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필리핀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와 한국풍습 등에 대해 배우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코피노엄마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깁핀'

짧은 일정이지만 필리핀 한비축제를 취재하면서 ‘글로벌시대’라는 말을 실감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건 한국인들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곳 필리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삶속에서 함께 하나 된 모습으로 울고 웃으며 즐기는 한비문화축제는 또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빠와 함께 가는 역사문화탐방 (해군 · 해전 역사탐방)

글 | 이규수





2010년 8월 21일과 22일, 1박 2일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생 가족 33팀과 함께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의 지원
을 받아 아빠와 함께 가는 역사문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 평소 대화와 소통
의 시간이 부족했던 아빠와 자녀들 간에 추억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을 맞아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안보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미래인재로 성
장하길 희망하며 계획되었다.

첫날 오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견학을 통해 한국전쟁
의 참상과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
를 확인하였고, 오후 평택의 해군 제 2함대에서는 1, 2차
연평해전의 전승비와 전적비, 작전에 참여했던 참수리
357호정 견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 후 인양된 처참한 모
습의 천안함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탐방참가자
모두는 전자사 46인을 추모하며 한동안 아픈 가슴을 달
래지 못했다.

이날 저녁 숙소인 홍성의 용봉산수련원에서는 레크레
이션과 캠프파이어, 엄마·아내에게 편지쓰기의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간의 사랑과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둘째날 아침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당진의 합성공원에서 직접 상륙함과 구축함에 승선하여 해병과 해군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간접경험 하였다.

이날 중식으로 제공된 전투식량은 아빠들의 지난 군시절의 향수를 자극하였고, 자녀들에게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탐방의 마지막 코스인 천안의 유관순열사기념관 및 생가를 둘러보며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본받고자 다짐하였다.

많은 지역을 이동해야 했던 이번 탐방에서는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섭외하여 자칫 지루하고 무료할 수 있었던 버스이동시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불과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둘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아빠와 아이의 꼭 잡은 두 손과 표정에서는 분명 어제보다 더욱 깊어진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원에서 처음 시도한 1박 2일 프로그램이었기에 담당자로서 학생들 통제와 일정 조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직장생활로 고되고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준 아빠들의 노력과 자녀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며 크나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011년에도 더욱 멋진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아이들을 초대할 생각에 벌써 마음이 들떠온다.



학생 미술 공모전



<대상>



[연꽃축제] 박우연_장곡초 1학년

<최우수상>



[월미두레 풍물놀이] 심은선_장곡초 6학년

<최우수상>

[씨름왕은 누구?] 한성수 _ 승지초 2학년



<최우수상>

[얼쑤 단오 가세] 정원영 _ 장곡초 5학년

<최우수상>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김아현 _ 도일초 3학년



<대상>



[사물놀이] 안지혜_군자초 3학년

<최우수상>



[관곡지의 풍경] 김예슬_응곡중 2학년

<최우수상>



[Welcome to 관곡지] 김아현 _도일초 3학년

<최우수상>



[관곡지] 장율리어나 _냉정초 5학년

문화탐방

- 계룡산 산행기
- 서산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
- 경주 양동마을 답사기



26년만의 추억여행

글 | 조미령 (산사랑 역사사랑 산악회 회원)



대학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 네명과 동학사 앞에서 1박을 하고 남매탐을 거쳐 갑사로 내려오는 여행을 했다. 그때는 산에서도 취사가 가능했던 시기라 남매탐 앞에서 잡탕찌개에 밥을 맛있게 해 먹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동학사→갑사 코스였는지, 갑사→동학사 코스였는지, 친구들이 네명이었는지 다섯명이었는지 헷갈린다. 세월은 저 혼자 가지않고 기억력을 같이 데리고 갔나보다.

시흥문화원 '산사랑 역사사랑 산악회'에서 1차 산행을 동학사 갑사로 정했던 소식을 봤을 때 아! 이거다 싶었다. 가을을 즐기러 떠날 기회를 찾고 있던 나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다. 게다가 한번 가봤다는 자신감이 산행 초보인 나를 겁 없이 나서게 했다. 하지만 세월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젊음도 같이 데려갔다. 내 다리! 온 몸 삭신이 쭈신다.

산행코스는 동학사에서 스님에게 설명을 듣고 남매탐에서 점심 후 금잔디광장을 거쳐 갑사로 내려오는 것이다.

동학사의 최초 창건은 남매탐 전설에 전해지는 상원조사로부터 시작되며, 당시에는 절 이름을 청량사라 하였고 고려시대 이르러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학사는 현재 비구니스님들만 거처하는 사찰로서 좀더 깊은 산에 있었으나 대중들에게 가까이 하고자 현재의 위치로 이사를 하였다고 한다. 삼불을 모시는 대웅전, 삼성각, 그리고 일반인 출입금지인 승가대학 도서관(강설전) 등을 스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려로



둘러보았다. 웃는 얼굴이 참 아름답던 스님의 설명과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내 가족, 형제, 이웃들이 모두 부처이니 주변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산 입구에서 산신제를 간단히 지내고 본격적인 산행모드... ..

올라가는 길이 무척이나 가파르다. 계다가 순 돌 뿐, 평지가 나오기를 그리도 기대하고 기대했건만 계속 돌길을 올라갈 뿐. '내가 왜 왔던가, 내가 왜 왔던가' 수십 번의 후회가 지나고서야 남매탐에 다다랐다.

손을 후들후들 떨면서 먹는 점심, 시간도 늦었고 힘든 산행 후라 다리까지 떨리지만 맛은 기막혔다. 내려가는 길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단풍이 드는 산, 비바람에 찢겨 쓰러진 나무들, 물고기가 노니는 맑은 폭포, 아이를 메고 올라가는 아빠, 엄마 손잡고 나온 아이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미소짓게 했고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감사로 내려오니 산사음악제를 했었나보다. 파장분위기가. 미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등산보다는 오히려 감사에서 음악제를 즐기고 감사를 더 여유롭게 둘러보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아마도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일테지.

역사를 배우면서 산행을 하는 '산사랑 역사사랑' 좀처럼 보기도문 참신한 기획인 거 같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배려하면서 맞춰나간다면 아주 멋진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관심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처지는 사람 받쳐주면서 함께 한 오늘, 눈부시도록 맑은 하늘과 함께여서 더욱 감사하다.

서산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 탐방기

글 | 정원철 (시인,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물안개 피는 화단을 보며 맑고 화창한 하루의 예감으로 집을 나섰다. 사흘간 내린 봄비로 초목의 옷 색깔이 확 바뀐 오늘은 봄꽃 지고 잎이 무성해지는 오월의 끝 무렵이다. 서산, 태안의 마애삼존불을 찾는 문화탐방의 날이다. 시흥문화원의 관광버스 대절 및 여행자보험 가입의 배려 하에 시흥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 3기생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이다. 내가 사는 월곶아파트 관리동 앞에서 월곶문학교실 3명을 만나 시흥문화원에 도착하니 관광버스가 미리 도착해있다. 아침 8시에 시흥문화원을 출발하여 충남 서산시로 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하여 부여받은 것을 다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모두 30명인데 그 중 초등학교 11명이 동승했다. 11명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나를 바라본다. 체험학습을 하려고 등교 대신 엄마와 함께 문화탐방 길에 오른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자기소개를 하였다.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새끼들 키우는 것이 우리들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소 거친 표현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전달하고는, 어른에 이어 어린이들도 자기소개를 하였다. 자기소개도 공부라는 생각으로 우정 어린이들도 소개를 시켰는데 다행히 모두들 동참하였다. 백제의 미소를 찾는 문화탐방답게 웃음꽃이 활짝 핀 탐방길이었다.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용현계곡에 도착하였다. 사흘간 내린 비로 개울물이 불어 파릇한 풀포기 위로도 계곡물이 흐른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잘 정돈된 계단을 오르니 불이문(不二門)이 서 있다. 부처의 삶과 중생의 삶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새기면서 문을 들어섰다. 한 굽이 돌아 다시 계단을 오르니 인자한 미소를 띤 석가여래가 반긴다. 계곡 아래서 올려보며 경배드리게 되어 있던 것을 가까이 보고 싶어 하는 중생들의 소망을 반영하여 석축을 쌓아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반갑게 맞이하는 관리인의 해설을 듣는데, 불상이 마주한 언덕을 넘어선 햇님이 구름을 뚫고 나뭇잎 사이로 석가여래의 얼굴을 비추었다. 언뜻 보면 단순히 바위에 햇살이 비춘 것이겠으나, 번뜩 구름을 뚫고 석가여래의 얼굴을 비추는 햇살은 마치 '너희들이 참으로 예쁘구나.'하는 음성과도 같았다. "오늘 서산마애삼존불을 찾아온 어린이들이 대성할 조짐이다."는 농에 웃으며 즐거워한 이후에도 마음 속까지 한 줄기 햇살이 비친 듯하여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어떤 온기가 먼 길 대기를 지나와 내 손을 거머쥐고 눈웃음 짓는 안온함이 느껴진다. 이 마애불이 일제 강점기에 발견되었더라면 지금 저 곳에 무사히 남아 있지 못했을 터인데, 다행히 1957년이 되어서야 발견되어 우리에게 그 신비의, 백제의 미소를 드러내고, 먼 후손들도 그 미소를 보며 위안과 격려를 받으며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고대 삼국 각축의 역사와 이후 전개된 한반도 영욕의 역사를 내내 바라보았을 석가여래의 저 미소, 1300여년 격동의 세월에 몸을 숨기어 중생을 보살피다가 평화가 찾아온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다 싶었다.





개심사를 들렀다.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소재한 개심사는 상왕산 기슭에 있다. 단청이 되어있지 않아 오히려 고풍스러운 일주문을 지나, 솔향을 옆에 끼고 오르니 마음을 닦아내는 곳이라는 세심동(洗心洞) 풋말을 지난다. 굽기가 한 아름인 배롱나무가 굽어보는 장방형 연못을 건너니 머리 위로 안양루가 보인다. 안양루를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난 해탈문을 지나, 대웅보전 앞에 서니 서쪽으로는 심검당과 설선당이 자리하고, 동쪽으로는 무량수전 건물이 있다. 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기자기한 산사다. □자형의 배치된 작은 사찰이지만 개심사에는 보물이 세 개나 있다. 성종 15년(1484년)에 지은 대웅보전은 주심포와 다포식을 겸한 건축양식이라 하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법당 내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또한 고려조에 만들어진 귀한 불상이어서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탕화 한 점이 보물로 되어 있다. 월곡문학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이우길 선생이 기둥 아래에 소금을 뿌리는 것부터 한옥 건축의 하중 분산의 우수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한옥은 기둥 하나를 뽑아내어도 우루루 무너지지 않는 우수한 건축법이라서 근래 미국에서도 이 건축공법을 배워서 사용 중에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으쓱해진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문화재 앞에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도 생산적이다 싶다. 역사 공부가 깊은 한태수 선생과, 시조시인 김종환 선생도 각자의 지식을 드러내니 이야기 받기 풍성해진다. 오층석탑 아래서 함께 간 어린이들을 불렀다. 성인들이 나눈 지식을 전달하려하니 건물 명칭을 소개하는 짧은 동안도 이내 아이들의 시선이 산만해지더니 곧 입이 열리고 몸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역시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스토리를 재구성해야만함을 느끼게 된다.

개심사 입구의 진분홍 장미가 아름답게 핀 고목나무가든에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을 나누고는 일주문 앞에 늘어선 좌판을 돌며 산나물 쇼핑을 하였다. 취나물과 고사리가 신선하여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누어줄 요량으로 몇 개 사 두고는 발길을 돌려 해미읍성(사적 116호)으로 향했다. 이십 분후 해미면에 들어서니 시내 한 복판에 덩그란 읍성이 있다. 진남문으로 들

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았다. 조선조 들어 왜구를 막기 위하여 성을 축조한 이래, 병영으로 쓰이다가 읍성으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변형을 거쳐 오늘날의 해미읍성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 듣



고는 읍성 뒤의 언덕에 있는 정자, 바다가 보이는 청허정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해미읍성을 뒤로 하고, 태안군으로 향했다. 저지난해에 연안바다에서의 기름 유출이라는 최악의 환경참사가 있었던 태안군이다. 연도의 풍경으로는 그 상처의 아픔을 느낄 수 없음에도 두리번거리며 태안군에 들어섰다. 백화산 중턱까지 관광버스로 찾아간 국보 제307호 태안마애삼존불은 서산마애삼존불처럼 미소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이후 서산 마애삼존불 조성 및 석굴암 본존불 조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마애불의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산둥반도로 내왕하던 뱃길을 지켜보던, 백화산 중턱의 마애불을 보면서, 태안서 부여 가는 길목의 서산시 용현계곡의 마애불을 보면서, 선조들이 종교라는 최상층의 개념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염원들을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었을까? 삼존불의 미소를 통하여 무엇을 꿈꾸고자 한 것일까?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전쟁의 위기를 느끼는 한반도의 상황도 지켜보고 계실 삼존불, 그 부처와 보살의 미소가 세상의 어려움 위에 덮이기를 기원해 본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문화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문화를 공유하는 일은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과 같다. 경제문제 해결에 전념을 전념한다고 해도, 경쟁체제 안에서 모든 이들이 경제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문화예술을 통하여 동참하는 모든 이들은 평화와 행복을 고루 나눈다.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행복을 나누어준다. 경제 문제만을 중시 여기며 문화예술의 이해가 부족한 이들에게 말해 주자. 문화예술의 마인드에 잠겨 있으면, 물자가 부족하여도 나름대로 평화와 행복, 나아가 삶의 보람이 드높아진다고 말해 주자. 우리 시흥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3기 모임은 지난 해 봄과 가을의 강화도와 공주, 부여 역사문화탐방에 이어 서산마애삼존불 탐방을 마쳤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기획하신 시흥문화원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문화탐방 지원을 하신 시흥문화원 원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께 감사드린다. 또한 시흥문화관광해설사 3기생으로 봉사에 참여하신 한태수님, 고혜련님, 이종순님, 전진숙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흥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끌어올리는 견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본다.

백제의 미소

-서산 마애불-

정원철

태안 거쳐 불어오는 서풍은 가야산 기슭
갯바위에서
발톱을 거둔다
동동남 해가 아침 10시를 비출 즈음
미소 띤 석가불 활짝 웃어 제친다
먼 길 찾아온 자녀를 맞는
농꾼 할배다

멀리 위례, 저 멀리 산등을 보고 있다
비류는 바닷가 미추홀에 잠들고
온조는 한강가 위례에 잠들어 있다
무령은 공주에서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지 마라
내가 서 있다

괜찮다 괜찮다 걱정마라
절벽에 서서 웃는다
홍익인간의 후예들아,
백제의 피붙이가 이 땅에 발붙이는 한
서산을 떠나지 않으리
삼세불이 웃는다

경주 양동마을 답사기

글 | 박종남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올해 여름에 다녀온 경주, 발품을 많이 팔았지만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돌아온 답사였다. 다시 계획을 세웠다. 느슨한 일정을 잡았다. 여유 있는 답사를 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그렇게 출발한 2010년 두 번째 경주 답사. 경주에는 늦가을과 겨울이 중첩되어 있어 조바심 난 마음을 달래기에 좋았다. 추억의 수학여행이 절로 그려지는 그런 경주 답사였다. 경주는 낯설지가 않다. 횡수로 치면 그동안의 방문이 열 번은 족히 넘을 터. 익숙한 거리에 들어서니 친근하다. 현지 해설사와 동행을 하여 민생고부터 해결했다.

부른 배를 안고 방문한 석굴암

경주 방문 횟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 번째 석굴암 방문. 예전에는 석굴암 내부 구경이 가능했었는데 유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 아쉬움이 크다. 일주문의 토함산석굴암이라는 현판에 따자에는 점이 찍혀있는데 안개가 많이 끼여 산이 안개 속에 갇혔다가 안개가 열리면 산이 드러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는 토속. 그래서 토한 흔적을 나타낸 것이 점이란단다.

일제 강점기 때 석굴암 불상 위 돌무지를 다 걷어내고 시멘트 처리를 하였고 이후에 1963년 한 번 더 시멘트를 입힌 것이라 했다. 본존불은 정중앙에서 뒤쪽으로 밀려나 자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간 확보가 되어 앞에서 바라보기에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전설에서 보았을 때 광배가 부처님 머리 뒤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곳에 있지만 보는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도 했다. 향마촉지인인 부처님의 팔 길이는 양쪽이 다르며 머리도 더 크게 만들었으나 보기에는 정성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단다.

1300여 년 동안 이끼가 끼지 않았던 원리는 본존불 밑에 지하수로 물길을 만들어 평균 기온을 13도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란단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지하수를 막고 돌무지를 걷어내면서 이끼가 끼고 있다. 10개의 감실 창이 습기제거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요즘엔 스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단다. 동해로 해가 떠오르면 석상으로 그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태양빛에 물들어 부처는 생명을 부여 받게 된단다.

1996년 영국의 찰스황태자가 석굴암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화로 혼자서 들어가 50여분을 감상하고 나오더니 “오늘 대단한 것을 보았다”하였고 “원래 옛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길이 없느냐”고 물어 불국사까지 걸어 내려갔단다. 석굴암에도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에 의해 반출된 부처와 석물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주었다.



시간을 생각하면 차로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이겠지만 아직도 남은 단풍이 있는 길을 걷기로 했다. 불국사까지 걸어 내려가는 길, 33년 전에 걸어 오르던 길과는 느낌이 달랐지만 단풍구경만으로도 행복했다. 불국사, 일 년만의 방문. 하지만 해설사의 설명이 있기에 볼 것이 너무 많았다. 시간은 흘러 해는 서산에 걸리고 마음이 급해졌다.

불국사의 건축미

불국사는 전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곳으로 아직도 곳곳에 시커먼 자국이 남아 있고 불에 타서 달아오른 돌들이 붉은 빛을 안고 있었다. 그냥 스쳐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곳에 중요한 건축 공법이 있음을 알았다. 자연석으로 만든 기층의 단과 인공석으로 만든 단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인공석을 자연석에 맞추어 깎아 맞물려 놓았는데 지진에도 견디는 견고함이 있다고 했다.

인간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넘어가는 공간에는 다리가 있다. 아름다운 형태를 지닌 청운교와 백운교. 부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강물을 건너고 구름 위를 가야 하는데 이 구름다리를 건너면 자하문이 나오고 그 문을 들어서면 부처님 나라에 들어서게 된다.

이 다리의 계단 아래에는 아치형의 통로가 있는데 그 아치형에도 독특한 건축공법이 숨어 있다. 이층의 돌 아치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돌을 중앙에 반대로 물리게 넣어 중심을 잡았으니 이 또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란 다.

석가탑과 다보탑 둘이 마주보고 있는 까닭은?

최초의 설법탑인 석가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여래상주설법탑(釋迦如來常住說法塔)이다. 현재의 부처인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것을 맞은편에 선 다보탑에서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多寶佛)이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 내용을 따라 두 탑이 마주 보고 있다.

석가탑은 1966년 도굴꾼으로 유명한 謀씨가 도굴을 위해 석가탑 3층 옥개탑을 들었더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원위치하였다가 이튿날 다시 2층 옥개탑을 들었더니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다. 다음날 재도전 하여 들어 올리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새벽 예불 나오는 스님들 때문에 급히 내려놓는 바람에 비딱하게 올려놓아 해체해야만 원형 복구가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이 발견되게 된 것이다.

대웅전 공포 모서리에는 용으로 토함(吐呑)을 나타냈는데 물고기를 먹는 장면과 물고기를 거꾸로 뱉어내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불국사 경내에서 들은 전설 한마당

경덕왕은 늦도록 아들이 없자 고심 끝에 표훈대덕 스님을 불러 부탁을 했다. 천상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부탁을 하고 오라고. 다녀 온 스님은 경덕왕에게 딸은 있지만 아들이 없다고 전한다. 경덕왕은 다시 스님에게 찾아가 아들을 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다. 옥황상제는 없는 아들을 자꾸 달라고 하면 나라에 위기가 온다고 했으나 경덕왕은 개의치 않고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 8살에 왕위에 오른 해공왕이다. 김양상이라는 대신이 반란을 일으켜 왕과 왕비를 살해하고 결국엔 왕위에 올라 선덕왕이 된다. 해공왕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딸을 아들로 바꾼 것이라 여성스러움이 지나쳐 어릴 때 늘 노는 모습이 여성스러웠다고 한다.

11월의 마지막 날 해는 짧았다. 완전히 어둠에 싸인 불국사를 벗어나니 멀리 가로등이 줄지어 선 야경이 들어왔다. 원성왕 무덤인 패릉을 찾았지만 석상의 특징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 아쉽지만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원성왕의 꿈 이야기

어느 날 김정신(원성왕)은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에 빠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부탁하자 “복두를 벗는 것은 관직을 잃을 징



조요, 거문고를 안은 것은 형벌을 받을 징조요, 우물에 들어가는 것은 옥에 갇힐 징조”라 했다. 해몽을 들은 김경신은 두문불출 앓아눕는다. 얼마 뒤 여삼이라는 사람이 찾아 와 만나기를 청하여 꿈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이 해몽을 해줄 테니 자신의 꿈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복두를 벗는 것은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요, 흰 갓을 쓰는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요, 12줄 가야금은 12세손이 왕위를 전해 받을 징조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가는 것은 궁궐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꿈은 임금이 될 꿈이라 했다. 김경신이 자신의 위에 김주원이 있음을 말하자 몰래 북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하지만 선덕왕이 죽자 충신들은 모두 김주원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 했다. 하지만 폭우가 내려서 북천물이 불어나고 건너편에 살던 김주원은 불어난 물로 인해 건너오지 못하게 된다. 하루라도 왕위를 비워두지 못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이 모여 결국에 김경신이 왕위에 올라 원성왕이 된다.

쾌릉인 원성왕의 능 뒤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당시에도 물이 흘러 실제 관을 바닥에 누이지 못하고 걸어서 장사 지냈기에 걸 掛자를 사용했다.

어둡속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살짝 한기가 도니 몸이 절로 움츠려진다. 조금만 더 해설사의 얘기를 기대하던 시작과 달리 이제는 어디론가 아늑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서서히 배꼽시계도 반응을 보였다. 종종걸음으로 차에 올라 조명으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경주 시내로 돌아 와 첫날의 답사 일정을 끝냈다.

경주에서의 둘째 날. 기온 낮지 않아 출발이 좋았다. 민박을 한지라 온천에서 지친 몸을 풀어 주기로 했다. 호텔의 온천. 겁먹었는데 적당한 가격이 안심을 준다. 나른한 듯 개운한 듯 피곤을 잠시 접어 두기로 했다. 힘차게 그 시작을 열었다.

분황사와 황룡사 터를 찾아서

경주에 분황사가 있는 마을 이름이 구황동(九黃洞)이다. 황룡사, 분황사, 황복사를 비롯한 아홉 개의 皇字가 들어가는 절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분황사는 한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선덕여왕 3년(634)에 건립되었으며 고승 원효



와 자장이 기거한 절이다. 원효는 이 절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원효가 죽자 아들 설총이 그의 유해를 넣어 흙으로 빚은 소상을 만들어 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한다. 하루는 설총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정면이 아닌 곳에서 인사를 하자 소상의 고개가 살짝 돌아가며 인사를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분황사에는 천수대비 그림이 있었는데 눈이 먼 자식을 위해 천수대비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자 천수대비가 자신의 눈을 주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편, 신라 때부터 근대까지 사용하였던 우물이 분황사 모전석탑과 보광전 사이에 있다. 전설이 있는데 그 우물에는 신라를 지키는 용이 세 마리 살고 있었다.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나서 신라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수차례 싸움 끝에 철수를 한 당나라는 호시탐탐 신라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우물에 사는 용이 신라를 지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우물의 영험함을 알고는 사신을 보내 우물 안의 용 세 마리를 당나라로 가져가려 했다. 이상한 가루를 뿌려 용을 물고기로 둔갑시켜 잡아 가두어 북천의 물이 불어나 왕이 되지 못했던 김주원의 후손인 강릉김씨들의 도움을 받아 귀국길에 올랐다. 원성왕의 꿈에 용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나타나 사실을 전하며 용을 다시 데려오기를 부탁하였다. 원성왕은 당나라 사신을 잡아 용을 데려오고 김주원의 후손 일당을 처단하였다. 다시 우물에 돌아 온 용은 신라를 지키는 호국룡으로 살게 되었다.

금석문의 대가인 추사 김정희의 흔적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원효대사의 일생을 기록한 기념비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글귀가 돌에 새겨져 있었는데 통 읽을 수가 없었다.

황룡사 터는 분황사의 담과 나란히 접해있다. 당간지주가 바로 담장 너머에 있었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야 부처를 모시던 터(금당지)와 탑이 자리하던 곳(목탑지)이 나왔다. 넓고 넓은 터 위로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고 형태를 짐작하게 만드는 돌들이 자리한 곳에서 있으니 자리를 뜨기 싫었다.

陵과 墓의 마술 - 김유신 묘

임금이 아니면서 임금처럼 흥무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김유신. 묘비에는 선명하게 陵字가 드러나 있었다. 물을 부으면 陵이 墓로 바뀌는 신기함이 있다고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선명하게 새겨진 陵이라는 글씨는 어떻게 해도 변할 것 같아 보였다.

호석에는 12간지상이 있는데 정남쪽은 말 북쪽은 쥐가 새겨져 있다. 김유신의 묘는 확인을 거쳐 인정한 곳은 아니어서 확신할 수 없다.

금관가야의 후손으로 신라 귀족에 편입하지만 영원히 가야인이라는 편견을 씻을 수 없었던 김유신. 79살까지 살면서 4대 왕을 모시며 신라의 지킴이를 자처했다.

김유신은 가야계인 아버지 김서현과 진흥왕의 아우인 속흥종의 딸 만명부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길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신라왕실의 딸인 만명부인은 뒤

주 속에 갇히지만 벼락이 쳐서 문고리가 절로 떨어져 김서현과 같이 도망을 치게 되고 지금의 진천 지역으로 가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김유신이었다고 한다.

용모가 뛰어난 무열왕

역사의 평가에서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김춘추,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뛰어난 외교관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외세를 끌어 들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진흥왕의 아들인 금류, 곧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 왕위에서 쫓겨난 진지왕으로 인해 성골에서 진골로 족강(族降)을 당한다. 진골의 신분으로 오랜 시간을 견디며 기다려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8년 동안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비신이 없는 무열왕의 비석은 이수와 귀부만 있었다. 용이 여섯 마리나 있는 이수부분은 중앙의 용 한 마리만 여의주를 물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귀부는 발가락이 눈에 들어왔는데 앞발가락은 5개요 뒷발가락은 4개였다. 앞으로 나아갈 때 엄지 한 개는 모래에 묻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독락당과 옥산서원

홀로 고독을 즐긴다는 뜻을 지닌 독락당. 이곳은 이언적이 기거하던 곳이다. 그는 조선 중종 때 인물이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키워낸 인물로 업적은 퇴계에게 이어진다.

독락당에는 특이한 담장이 있었다. 창살을 지닌 담장. 그 빈 공간들을 통하여 계곡을 실내에서 즐겼단다. 또한 계정(溪亭)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 건물이 벼랑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궁이와 굴뚝이 나란히 있는 특징도 보여준다.

아궁이와 굴뚝을 나란히 배치하여 해충을 퇴치하고 집이 그을림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막았다 한다.

바로 인근에 있는 옥산서원을 찾으니 오래된 향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로 연결된 돌다리 아래로 계곡수가 시원하게 흐르고 깊은 물 위에는 낙엽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현판은 원래 이산해가 썼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로 소실이 되자 한석봉이 다시 썼고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다.

전착후광(前窄後廣) 최고의 길지인 양동마을

입구는 협소해 보이지만 들어 갈수록 넓어져 亂을 피하기 좋은 길지가 바로 이곳이란다. 3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3합수로 들어 기름지다는 양동마을. 이곳에는 예부터 현재까지 정? 제계로 진출한 인물들이 넘쳐난다. 이 또한 풍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양동마을에는 반가의 집들과 노비들이 기거하던 초가집들이 섞여 있었다. 양반들의 집은 지대가 높은 곳에 그에 비해 낮은 곳은 초가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담을 낮게 쌓아 바깥 경치

를 내려다보게 하였다는 눈썹담. 아궁이와 굴뚝을 일렬로 배치하여 불이 잘 타고 열이 더디 식는다는 남방식구조를 지닌 가옥. 기둥 바로 시작 옆에 구멍을 뚫어 통풍을 시키는 지혜. 부엌 공간에 열기설기 문 위로 통풍구를 두어 수증기를 일순간에 빼주는 등 한옥만이 가지는 특징이 여러 곳에서 보였다.

이언적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집무실을 특별히 양동마을에 두게 되는 특혜를 입지만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된다. 그는 고향을 떠나면서 노모를 동생 이언팔에게 부탁한다. 이언팔의 효성을 기린 공간이 '심수정'이다. 찬찬히 살필 시간이 없어 안타까웠다. 반나절을 잡고 돌아본 양동마을이지만 입구마을만 겨우 돌아 본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의 하루는 너무 짧아 관람객의 시간을 담보로 잡아 마음만 조급하게 만들었다.

열은 어둠이 조용히 사방을 감싸고 있는 양동마을에서 다음을 다시 기약하며 아쉬운 일정을 접었다.

- ① 지대가 높은 양동마을 반가의 집
- ② 창살이 있는 담장
- ③ 독락당과 나란히 한 계곡



문화의 현장

■ 시흥의 상여소리

■ 교향악단



시흥의 상여소리를 찾아서 동행기

글 | 정원철

1. 국악인 박일엽, 시흥시에 뿌리를 내리다

국악 인생 40년차의 아내 일을 돕기 시작한지 벌써 십 여 년이 넘었나보다. 그 전까지 국악은 항시 내게 한 마장 쯤 떨어진 이웃집의 일쯤으로 생각하던 터였다. 외진 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홀로이 가듯 하는 아내의 국악 인생길이 안쓰러워 붓집 하나 들어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 한 것이 벌써 십 여 년이 지난 것이다. 어려서 들던 민요들을 상기해가면서 국악과 친분을 더해 가다보니 어느새 나도 국악인이 되어 버렸다. 아마도 나의 전공 국문학과 일정한 영역을 공유하기에 빨리 친숙해진 것일 게다.

아내와 나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정착단계인 1996년도에 군자염전을 매립한 시화공단 배후 아파트 단지에 상가와 아파트 한 칸을 분양받아 등지를 틀었다. 어려서부터 시조창과 판소리, 경기민요를 하던 아내가 당시 서도소리에 심취해 있었고, 서해안가에 새로이 조성된 시화지구는 서도소리를 풀어내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내는 열심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몇몇 성인 문하생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였다. 그러다가 시흥시 여성회관에서 2005년도 제1회 박일엽의 서도소리 발표회를 하였다. 국악 공연을 관람만 하였지 스태프 경험이 없던 내겐 꽤나 곤욕스러웠던 공연이었으나 그를 계기로 국악인 박일엽의 우호적 동반자에 머물던 시인 정원철은 국악 공연의 연출자로 다시 나게 되었다. 음향이나 조명 등에 관한 지식을 하나씩 주워들면서 무대란 무엇인가, 예술인에게 있어서 무대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의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음향과 조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후 수 년 동안 사회를 보기도 하고, 영상실에 앉아 음향이나 조명 조절을 하고, 리허설의 진행을 맡아 보면서 점점 국악에 관한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06년도 서도소리 시흥지부를 개설하면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공연 예술에 빠져 들었다. 내가 기획하고 연출한 공연만도 근 이 십 여 회에 가까우니 공연 한 회에 1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할 경우 근 이억 여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키운 연출가가 된 것이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쓸 만한 스태프가 된 것이다.

2. 폭넓은 국악의 세계, 근원 찾기

아내 박일엽은 전북 임실 태생이다.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인 남원과 임실이 지척지간이다보니 어려서부터 판소리와 시조창을 접하게 되었다. 임방울 국악단이 동네에 들어와 한 달여 천막치고 머물면 아내는 동네에서 차출한 아역가수가 되곤 했다. 판소리의 명인 오정숙 선생에게 배우기도 하다가 전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는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밴드부에서 북을 치기도 하였으나 정작 대학교 진학은 의상학과로 진학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전공 공부보다는 안향년 선생을 찾아가 남도민요를 공부하고, 전설적 경기 명창인 김옥심 선생을 찾아가 경기민요를 공부하는, 기나긴 국악과의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삼 십대 들어서 서도소리를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줄곧 국악의 갈래란 갈래는 다 찾아서 공부할 수 있었냐는 질문을 하면 “아마도 가게에 전해온 피의 흐름이 아닌가 한다.”고 아내는 답을 한다. 아내의 친할아버지 박성환은 임실과 남원의 인물이었다. 할아버지 박성환은 양반 자손이 광대노릇 한다고 하여 남원의 본가에서 쫓겨오듯이 임실로 이사 가야했던 당시에도 혼치않은 열두발 상모꾼이면서 상쇠 겸 통소쟁이었다고 한다.

국악은 가무악(歌舞樂)이 한데 어울려야 한다고 한다.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가 어울려야 하는데 각 부문별 예술적 기량은 한평생을 노력해도 끝을 보기 쉽지 않은 예술이다. 노래의 경우도 민요와 정가, 판소리 등으로 구분하는데 민초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도 지역별로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가 있고, 잡가도 경기잡가와 서도잡가로 세분화되어 근자에 국악하는 이들은 이 중의 한 분야만을 전공하기 마련이다. 한편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정가는 시조창과 가곡, 가사, 시창 등으로 발달하였는바 수 천 년 이어온 한반도의 고유한 노래는 일평생을 바쳐도 배우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며 깊이 또한 모를 지경이다. 아내는 어디서 그런 기운을 받았는지, 절대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40여년의 국악 수련 기간을 거치면서 전통 성악은 모두 섭렵하는 괴이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판소리, 각 지역별 민요, 잡가, 시조창을 반백년의 나이가 되도록까지 공부하더니 지금은 가곡과 가사를 전수받고 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아내가 조용조용 해 오던 것이 있다. 잘 정돈된 노래를 스승에게 전수받는 것 외에 동네 명창들의 입으로 전해오는 토속민요를 채집하는 일이다. 토속민요는 투박하며 예술성이 떨어지는 소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전통성악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살려 내는 일이 국악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국문학을 전공한 나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시흥시의 고유소리를 찾아서 복원하는 일에 참으로 긴 세월을 투자하였다.

3. 시흥의 상여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전통예술(성악)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소리는 무엇일까? 한국의 삼대 전통성악은 범패와 가곡, 판소리라고 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전통예술의 골격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보다 시원(始原)을 찾으려면 아직도 노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토속민요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어느 학자는 상여소리가 한국 소리의 근간이라고 하였다. 상여소리는 인간의 원초적 슬픔인 가족의 죽음에 대한 탄식, 울부짖음 등으로부터 시작된 소리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그러하다. 상여소리를 듣는 누구라도 눈물짓는 모습을 볼 때에 한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서 비어져 나오는 소리임이 틀림없다. 어로요인 부산 다대포 후리소리를 들으면 뱃노래에도 상여가락이 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들노래에도 회다지소리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여소리는 한민족의 보편적 감성이 배인 시원의 소리라고 하겠다. 상여소리는 동네마다 조금씩 달리 불러 지는데 시흥의 상여소리는 궁중에까지 알려진 귀한 소리였다고 한다. 시흥시의 염씨라는 이는 고종황제 운구할 때에 상여소리를 메겼었다하니 시흥시의 토박이 소리꾼들이 치던 상여소리를 찾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먼저 시흥의 소리꾼들을 찾아 나섰다. 결국 소리꾼들이 상여소리를 메기고 회다지소리를 부르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상여소리는 실제 상여가 나갈 때 아니면 잘 들을 수 없으니 일단 찾아가서 그들이 부르는 전통노래는 무엇이든 채록해야한다는 생각에서다. 각 동네 통장을 만나 소리꾼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대부분 타계하시고 어떤 이는 자녀 출가시키고는 서울로 인천으로 이사가 버려 연락조차 끊겨있다고 했다. 정왕동에서 가까운 안산 초지동의 둔배미 놀이라는 배치기와 김매는 소리를 조합한 소리의 발굴도 198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도시로 이사간 토박이 소리꾼들을 찾아가 채록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니 30년이 지

난 지금 늙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민망할 지경이다. 바닷가 포구였던 포동의 새우 개 마을도 찾아갔고, 월곶동과 목감동 등으로 수년 째 찾아 다녔으나 토박이 소리꾼을 만날 수 없었다. 오가는 행길에서 찾아낼 수도 없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맥 빠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물꼬가 트였다. 시흥문화원 이사님들의 주선으로 토박이 명창을 만나게 되었다.

시흥문화원 감사로 계신 최재갑 선생과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건네 소개받은 85세의 방연근옹은 소래염전 남쪽에 위치한 월곶리(동) 동네 명창이신데 서도소리의 초한가와 난봉가 등을 즐겨 부르시고 동네 상여 선소리를 메기셨다고 한다. 찾아가서 소리를 청하니 극구 사양하시어 몇 차례 방문 끝에 겨우 아내의 국악 전수소로 모시어 난봉가와 회다지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워낙 고령이어서 당신 혼자 소리를 내시다가는 한 두 마디하고 끊어지곤 했는데, 아내(이하 박선생이라 칭함)가 후렴을 받고 때로 가락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채록할 수 있었다. 방연근옹의 상여소리는 회다지소리에서 그 기세가 살아난다. 국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싶은 방연근옹의 회다지 소리는 한 선비가 태어나서 과거 급제한 이후의 영화로운 일생을 그린 내용이였다. 줄거리와 구성이 꽤 충실한 한편의 가사문학이였다. 끊었다 이었다 하면서 겨우겨우 채록하였다. 박선생이 두어 시간 다양한 국악소리를 들려주면서 기억을 더듬는 일은 아슬아슬 줄타기와 같았다. 전통 소리의 발굴에 있어 소리꾼이라 알려졌던 이들은 대부분 제보를 통해서 그나마 발굴이 가능한데, 보존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방연근옹이 너무 고령이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애초에 소개조차 없었다면 귀한 그 소리를 채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토속민요의 발굴은 전문 국악인이 토속민요 발굴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동네의 원주민들이 작은 자료



라도 적극 제보로 호응해 주어야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2009년은 시흥시에 정착한 이래 이런 저런 인연이 깊어지는 해였다. 인연이 깊어지면서 토속민요 발굴도 진전이 따랐다. 목감동에 사는 시흥문화원 김영기 이사를 알게 되었다. 평소 낮가림을 하는 나지만 지역 내 토박이 소리꾼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금이동에 사는 75세의 신현돌 선생을 만나게 된 건 그 인연 덕이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과 서도잡가 범벅타령을 즐겨 부르시는 신현돌 선생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금이동에서 살아오신 토박이 소리꾼이신데 지금껏 동네 상여소리를 메저온 분이셨다. 간상여소리부터 시작해서 자진 상여소리, 봉분을 다지는 긴 회다지소리, 자진 회다지소리, 유희방아소리까지 구성지게 다 풀어 내셨다. 신현돌 선생을 만난 아내와 나는 다소 흥분했다. 물왕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동산에서의 두 차례 채록을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신현돌 선생과 박일엽은 상여소리를 공연에 올리자는 약속을 하였다. 전국의 상여소리를 채집해 온 박일엽이 받아주는 후련에 시원스레 선소리를 매기는 신현돌 선생의 상여소리를 들으면서 그간 채록을 위해서 수소문하던 고달픔은 흔적 없고 시흥의 상여소리를 시흥시민에게 알리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협심이 발동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4. 시흥의 상여소리를 무대에 올리다

아내 박일엽은 공연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내게 기획 및 연출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례 없이 고생스런 공연준비를 하였다. 간혹 국악인들이 무속놀이나 상여소리를 무대에 올리는데 공연을 보면서 전통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애쓰다는 생각 정도에 머물었는데, 상여소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상여소리 공연이 정말 많은 인원과 노력, 경비를 들여야 이루어지는 공연임을 알게 되었다. 교육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악인 박일엽의 손으로 발굴한 시흥의 토속민요들, 들노래(모심기, 김매기소리), 바다노래(배치기 외), 상여(회다지)소리를 전승하고 대외적으로 발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내 고등학교에 동아리팀 발족이 절실하다. 공연 준비 비용은 자비를 들이더라도 인력만큼은 시흥시를 고향으로 하는 젊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시흥시회다지소리 보존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도할 자세를 이미 갖추고 있으니 어디선가 적극적 협력자가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다행히 시흥문화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시흥시의 문화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는 애향시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민족으로서의 통일된 연대감과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문화시민들의 역량으로 우리의 시흥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빈다.

여자들이라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해야한다는 뜻을 새기며 결성하여 공연 연습을 시작하였다.

겨우 상두꾼을 구성하여 매주 토요일에 모여 연습을 하는데 전원 참석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참으로 불가능한 주문이었다. 불참자들로 인해 연습이 자꾸 맥이 끊긴다. 한편 꽃상여를 사전에 준비해야 했다. 물어 물어 천안까지 상여제작소를 찾아가서 꽃상여를 주문하여 상여가 전수소에 도착하였으나 낭패를 보았다. 꽃상여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해서 결국 국악 전수소로 들이지 못했고 공연일까지 상여를 보관해둘 데를 찾느라고 진땀을 뺐다. 공공장소에 두자니 주민들이 싫어하여 맡겨둘 장소를 찾는 일조차도 큰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다.

연습도 연습이지만 무대에 올리려면 연출 기획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일을 준비해야 하는 내가 상여를 메 본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어떻게 무대를 꾸미고 어떤 동선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 부랴부랴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공부를 해야 했다. 일반적인 상례 절차를 살펴야 했고 선소리를 맡아주신 신현돌 선생과의 수없는 대화를 통해 시흥의 상여소리를 무대에 올리는 기획을 마칠 수 있었다. 상여소리 연습에 이어 회다지 소리할 때의 동작을 재현해내는 일도 많은 시간 연습해야 했다. 결국 두 달여 연습을 하고서야 상여소리의 후렴을 받는 일이나, 회다지 소리할 때의 동작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었다. 시흥의 상여소리를 전수하고자하는 신현돌 선생과 박일엽의 고생 끝에 겨우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문화생들에게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전반에 걸친 이해를 시키는 일은 마치 신대륙 탐험의 성과와도 비견될 정도였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연습을 하는 것은 문화생들에게 부담이 컸다.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화생들이 급기야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국악이 생업이 아니고 취미 생활로 참여하는 이들도 보니 평시의 공부시간 외에 주말에 추가되는 연습이 가정 불화로 불거진 것이다. 결국 문화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직원 두 명이 연습 막바지에 동참하여 공연에 투입되었다. 주최 측인 아내와 나는 참으로 마음이 고달팠다. 출연료도 적게 주고, 연습시엔 차비도 안 주면서 그들을 동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생각이 들어, 우리 둘의 인건비 청구를 할 데 없어도 말없이 연습 때마다 식대를 지불해야 했으니, 전통문화 보존이란 노동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사회적 약속을 벗어나야 하니 그 어려움이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누가 자비를 들이며 긴 세월 상여소리를 무대에 올리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싶다.

상여소리의 재현은 상여준비부터해서 상복, 만장기, 공포, 요여 등 준비물의 종류 파악부터 고된 일이었고,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노력과 비용 부담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선이어서 고통스러웠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금을 사용할 때엔 사전에 예산 규모를 정해서 그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상례인데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은 그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무대에 올리는 어려움은 아무 곳에도 이야기 나눌 곳이 없었다. 공연에 올리기로 결정하였지만, 신현돌 선생이하 많은 인원을 동원 연습시켜 놓고는 자금부족으로 못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다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전통예술가로서의 자부심마저 모두 무너질까 싶어 그냥 아내와 나 둘이서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공연일이 되었다. 고맙게도 300석 규모의 시흥시 여성회관이 딱 찼다. 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공연을 시작하였다. 시흥의 소리꾼들에게 즐겨 불러 졌던 언문뒤편이(서도소리)와 범벅타령(서도소리)을 무대에 올리니 이런 노래가 시흥에서 불려졌구나 하는 감탄의 소리가 나오고 박수소리가 커졌다. 시흥의 토박이 소리꾼 신현돌 선생과 박선생이 함께 부르는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을 들으며 전문 국악인과 동네의 아저씨 소리꾼이 무대에서 어울어져 부르는 것이 정겨웠다고 한다. 방연근 옹은 85세의 고령에도 꽤 많은 소절의 난봉가를 흥겹게 이어갔다. 드디어 상여소리가 무대에 올랐다. 아들 정의범도 상여소리에 영정을 들고 앞장섰다. 영정, 공포에 이어 혼백을 실은 요여(腰輿)가 지나고 그 뒤로 선소리꾼 신현돌 선생과 박선생이 섰다. 약 삼십 여 분간 상여소리를 하는 내내 관중석에선 흐느껴 우는 소리가 새 나온다. 회다지 소리를 할 때엔 구수하면서 느릿한 동작에 맞춘 회다지 소리에 귀 기울이더니 마지막의 '어화나' 소리를 할 때엔 절정에 달했다. 처음 듣는 우리의 소리에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신현돌 선생과 박일엽이 번갈아 들려주는 상여소리, 그리고 신현돌 선생과 방연근 선생이 번갈아 들려준 회다지 소리에 박수와 울음소리가 공연장을 메웠다. 출연자 및 스태프들은 그런 정경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이런저런 고초를 겪었어도 환호하는 관중의 소리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린다.

5. 다시 또 무대에 올린다

제1회 공연을 마친 이듬해 가을, 제2회 시흥의 상여(회다지) 소리 공연을 올렸다. 이번에는 시흥시 방산동에 수 대째 세거해 오신 김인삼 선생을 모셨다. 그동안 시청 향토자료실과 문화원에서 그분의 소리를 채록하며 중요시 여겼으나 좀체로 공연에 응하지 않는 어르신이었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 뵈는 것이다. 명인은 명인을 알아본다고 할까. 박선생과 국악 이야기를 한참 하고는 박선생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맞추시더니 이내 당신이 아시는 상여소리와 회다지 소리를 내놓으셨다. 그 뿐 아니라 이후 만남을 지속하면서 당신이 젊어서 논일하면서 부르던 시흥의 들노래도 모두 들려 주셨다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시간을 두고 찾아내서는 채록에 응하여 주셨다.

박선생은 제1회 발표회 준비로 상여소리와 회다지 소리를 보존회원들과의 여름 캠프에서 가르쳤다. 공연에 즈음해서는 지난 해에 신현돌 선생이 회원들과 매주 연습하였듯이, 김인삼 선생께서도 손수 상여소리 선소리와 후렴을 가르치시고 회다지 동작까지도 손수 가르쳐 주셨다. 2010년의 제2회 공연에서의 상여소리는 김인삼 선생과 박선생이 선소리를 메기고 보존회원들이 후렴을 받았으며 회다지소리는 신현돌 선생께서 북을 메고 소리를 메기셨으며 제1회때 선보였던 회다지 동작을 무대에 올렸다.

사람은 역경을 겪으며 크다고 했나, 상여소리를 무대에 두 번 올리고 나니, 조금은 자신감이 생긴다. 두 번째 공연은 첫 번째 공연보다 자급난이 심했으나, 무대에 올리는 준비는 부담이

덜했다. 정말이지 지역 내 독지가들의 후원 한 톨 받지 못하고 공연을 하려하니 두렵기까지 했으나 묘하게도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해낸다는 의식도 생기고, 현대인에게 전통상례 문화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소개한다는 예술가로서의 욕심에 눈이 멀어 버렸다. 그 결과 자비가 꽤 많이 들어갔지만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듣다보니 보람이 꽤 크다. 어린아이가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는 자기 힘에 부치는 심부름도 마다 않는 심리가 우리 부부에게도 그대로 작용하였다. ‘까짓것, 인생 별 거 있나, 일일이 수지를 맞추며 어떻게 살 수 있나, 생존에 지장이 없다면 자비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도 되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지난 9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1년도 상반기 상설공연을 공모하였는데, 기왕 시흥의 상여소리를 건져 냈으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할 것이 아니겠냐는 숙의를 한 끝에 응모한 것이 선정된 것이다. 깊은 뜻을 살려 응모하여 선정되었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국악인 박일엽의 성실한 국악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국악인 박일엽에게 시흥의 상여(회다지) 소리 공연을 허락하였지만 감당해낼 것이 걱정이다. 동원 인원은 최소한 50명이나 되어야 한다. 상여를 메는 인원은 10명에서 24명까지 필요한데, 기왕이면 24명의 상두꾼이 우렁차게 후렴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정, 공포와 만장기가 12개, 상주 5-6명, 제다가 방상씨 2명에 운삼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상여소리에 투입되는 보조 인력만도 46명이나 된다. 더욱이 서울까지 이동하여야 하고 상여준비와 관련 부대비용까지 생각하면 필요 인력과 소요자금이 큰데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이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지금껏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동분서주하며 감당해 왔으니 아마도 잘 해결될 것이다. 내년 오월이 지나면 시흥의 상여소리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그 기록물이 영구 보관되고, 경기도 나아가 전국적으로 전통문화의 보고 시흥시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어려움과 희생이야 예견되지만 그만한 보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6. 시흥의 전통문화(예술) 전승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문화라고 한다. 그 중에서 전통문화란 한 지역 내의 동족에게 뿌리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대외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의 전통문화 마케팅이란 개념의 대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시흥시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끌어줄 시흥시의 토속민요 전승 보급에 우리는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

미래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발전하는 것일 게다. 각자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시흥군에 속하였다는 노량진에서 태어나 자란 내게는 지금의 시흥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시흥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있다. 바야흐로 시흥은 우리 가족의 실질적, 정신적 고향이 되었다. 아내 박일엽은 국악의 전승 교육에 주력하면서 자신이 발굴하여 무대에 올린 시흥의 토속민요(상여소리, 들노래 등)를 전승 보존하는 일에 자신의 노력



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글을 쓰는 나는 나대로 전통문화와 문학의 연계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시흥시를 고향으로 여길 많은 이들은 시흥의 전통문화를 찾고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증대시켰으면 한다.

또한 시흥시내의 각계각층의 합심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지난 상여소리 공연도 많은 시민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2009년의 첫 번째 상여소리 공연은 직간접으로 문화원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2010년의 두 번째 공연은 「시흥시 회다제소리 보존회」회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제 2011년 5월 국립민속박물관에서의 공연 시작은 국악인 박일엽의 응모와 국립민속박물관의 선정으로 시작하였으나, 진행은 시흥시의 합심 노력으로 진행하여 시흥시의 전통문화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낳고 싶다.

교육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악인 박일엽의 손으로 발굴한 시흥의 토속민요들, 들노래(모심기, 김매기 소리), 바다노래(배치기 외), 상여(회다제)소리를 전승하고 대외적으로 발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내 고등학교에 동아리팀 발족이 절실하다. 공연 준비 비용은 자비를 들이더라도 인력만큼은 시흥시를 고향으로 하는 젊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시흥시회다제소리 보존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도할 자세를 이미 갖추고 있으니 어디선가 적극적 협력자가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다행히 시흥문화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시흥시의 문화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는 애향시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민족으로서의 통일된 연대감과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문화시민들의 역량으로 우리의 시흥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열정의 지휘자 양일오와 시흥시 교향악단

글, 사진 | 박화원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시흥시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 선율은 2층 계단을 재빨리 오르게 했다. 크지 않은 연습실엔 평상복 차림의 단원들과 포디엄 위에 올라선 검은색 폴라티 차림의 지휘자가 보였다. 주위엔 악기 케이스와 보편대 위의 악보에 시선을 집중하는 단원들의 몰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많은 악기들의 응집력있는 소리는 지휘자와 단원들의 호흡에서 나오는 것이다.



찾아가는 음악회 대성초등학교 연주



교향악단 단원의 악기케이스

다음날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가평에서 있었다.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여 단원들은 '대성초등학교'에 모였다. 양일오 지휘자님의 재미있는 현장해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지휘자가 피아노로 곡들의 주제를 쳐주며 설명하자 학생청중들은 웅성거림없이 영롱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은 군인들의 군화소리를 표현했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광고에서 들은 걸 기억한듯 좋아했다. 소프라노 곽효영(시흥시립합창단원)이 "You raise me up"을 부르자 "우아 예쁘다!"라고 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휘자는 연주 사이에 퀴즈도 곁들여 입담을 높였다. 음악회가 끝나고 만난 학생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하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휘자 양일오는 19세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오디션을 보았다. 군대를 마치고 목포대학음악과를 졸업한 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으며 조지아주립대학에서 석사로 바이올린, 지휘, 오르간을 전공했다. 콜롬비아심포니악장, 사우스이스트텍사



스윙포니오케스트라에서 지휘를 시작 휴스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유럽순회공연으로 러시아 다섯군데 뻬쩨르브르크, 칼린그라드, 라로스라프, 마이코프, 소치스피니 순회 지휘를 했다. 아스트라한 국립음악대학교에선 2년반 교수로 재직했다. 여기서 만난 졸업반 피아노과 학생과 결혼해서 두 살된 아기가 있다. 한국에서 생활한지는 4년이 되었다. 현재는 시흥시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활동 중이다.

시흥시상임지휘자를 만났다

2년간 시흥교향악단을 지휘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시흥교향악단은 오디션을 거친 상임단원들입니다. 2관편성에 40명 단원들은 곡에 따라 4관 편성을 갖추기도 합니다. 매년2회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경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갑니다. 내일은 강원도 횡성으로 가고 다음 일정으로 과천시민회관에서 오페라 ‘리골레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식대중이 시흥시는 약해서 어떻게 높이고 친숙하게 하는가는 앞으로의 책임입니다. 올해는 쇼팽과 슈만의 200주년이며 한국에서 많이 하는 브람스,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쇼스타코비치곡을 했어요. 지금 연습하는 곡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네요. 앞으로 연주할 곡은 브르흐 바이올린협주곡, 베토벤교향곡, 모차르트교향곡, 브람스교향곡, 드보르작교향곡, 시벨리우스교향곡, 차이코프스키교향곡6번 ‘비창’ 이죠. 송년음악회를 올해의 마지막으로 보내게 될 것 같네요.”

시흥시교향악단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나요?

“수준급 실력을 갖춘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죠. 특별한 색깔을 만들고 싶어요. 연주회는 다방면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가족음악회, 기업인을 위한 음악회를 활성화하여 들려주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음악으로 지역문화에 활력을 주고싶어요. 시흥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작품에 대하여 좋아하는 작곡가와 오늘 대표로 꼽는 곡,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곡은 어떤 곡이죠?

“클라이막스가 있는 작품, 계속해서 쌓아올려서 터트리는 음악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처지나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곡을 좋아해요. 브르크너교향곡 9번은 미완성곡이죠. 한시간가량 연주되는데 9번의 숫자는 음악사에서 의미가 큼니다. 베토벤교향곡9번, 슈베르트교향곡9번, 말러교향곡9번. 9번은 죽음과 연관된 숫자인데 왜 애착이 가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곡에 젖어있어요. 브르크너가 종교인이라 그렇긴 해도 미완성이라 더 여운을 남겨 놓죠. 현시대와 전 세계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곡은 브르크너9번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하는 시기, 우리가 진리라 믿었던 게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미완성9번과 현재의 삶이 어울립니다.”

지휘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원들과 지휘자의 좋은 호흡으로 역량있는 오케스트라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아쉬운건 행정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져 지방의 오케스트라도 스케일이 큰 사운드로 작품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다. 송년음악회는 우리시 교향악단의 연주를 꼭 듣고 싶다. 뭔가 특별한 지휘자이며 인간적인 인상이 깊이 남는 지휘자 양일오는 음악을 많은 사람과 감정을 전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다. 예술의 기능은 인간이 청각이나 시각에 의해 남의 감정의 표현을 파악할 때 그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 경험한 것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 유래한다. 관객이나 청중이 각자의 경험한 감정에 감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톨스토이는 예술은 예술인이 느꼈던 감정을 남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순간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친절히 대해준 시흥시교향악단의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화음악감독님 감사해요. 점심식사 맛있었냐고 물어봐주셔서 감사했어요. 가평가는 길 차안에서 아프리카음악이 최고라고 하신 비올리스트 임윤영님과 한정혜님, 연주때 잘 생겨서 눈에 띄는 류성진님과 메일로 사진 보내주신 신이나님 감사해요.



테마기획

- 아름다운 이별학교
- 신 시흥인
- 소산서원
- 건강지원센터
- 희망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이별 준비됐나요

글 · 사진 | 정현순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유언장 작성하기

“나는 한 남자를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고 살았다.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고 가족들과 아내에게 잘해주어라. 엄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줄 금액이 없어 정말 미안하구나. 만약 내가 병이 나서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고 고요하게 가게 해다오. 나는 죽으면 화장해서 ‘수목장’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죽고 없어도 형제들과 자주 만나고 우애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엄마는 죽어서 하느님나라로 가니 너무 서러워 말아라.” (백합님)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별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로 들어섰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잔잔한 음악과 한 노인의 유언장이 낭독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단에서는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노인죽음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름다운 이별학교란 주제로 노년기를 맞고 있는 어른신을 대상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작용되는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인죽음준비프로그램 일정표

노인종합상담센터 김정남강사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나의 회상록, 매듭풀기, 인생그래프그리기, 존엄사, 유언장쓰기 희망나무 만들기 등이다. 또 새오름 박태형 호스피스진행으로 입사체험(입관체험)도 있었다. 그중 유언장쓰기와 입사체험을 취재해보았다.

어떤 지위에 있든, 잘 살든 못 살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 노 병 사.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는다.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에게도 찾아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아름다운 이별학교에 대한 강의를 듣는 노인들은 평균 60대 초반에서 70대의 나이이다. 그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하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 '죽음은 친구이며 인생의 노을' 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일출만큼이나 아름다운 노을, 낙조이다. 그 아름다운 낙조를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장식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준비 중의 한 가지는 미리 써보는 유언장일 것이다. 유언장에는 자필유언장, 유언녹취가 있다. 아주 중요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변호인 입회하에 공증을 받아 놓는 방법도 있다.

강의를 들은 노인들이 각자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이 아주 진지하다. 그런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 유언장이란 것을 작성해보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유언장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쓸까? 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다.

유언장은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효력이 있고 법보다도 더 유효하다고 한다. 1년에 한번, 아니 수시로 유언장을 써본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진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같다. 각자 완성한 유언장을 낭독하면서 노인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그렇게 고이기 시작했다.

유언장을 만들고 남은 삶을 잘 살자는 의미에서 희망나무를 만들었다. 조금 전 우울했던 분위기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감출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숙연했던 입관체험

그 다음 주에 있는 입관체험에도 함께 했다. 죽음에는 5단계 반응이 있다고 한다.

① 충격, 부정 ② 분노 ③ 타협 ④ 절망, 우울 ⑤ 수용

죽음의 반응들을 보면서 상상해보았다. 만약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아마 나도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이다. 괜스레 슬픔이 밀려왔다. 드디어 입관체험이 시작되었다.

한 명 한 명 심오한 마음가짐으로 수의를 입고 입관예절에 들어갔다. 수의를 갖추어 입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읽고 관속으로 들어간

유언장쓰기

- 생년월일, 이름, 유언장 작성날짜
- 자신의 심정(죽음에 관한)
- 남은 자에 대한 배려
- 소유물정리
- 자신과의 관계(식물 인간이 되었을 때, 장례문제,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
-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마지막인사

입관체험순서

- 임종예식(사망 경위, 사망시, 참석자와의 관계)
- 유언장 낭독(수의 입고 낭독)
- 입관예식(입관, 관 뚜껑 달고 못 질, 핵심피드백)
- 장례예식(목상 및 묵념, 유언장 핵심단어 반복)
- 부활예식(살아남을 선포, 축하 박수 및 격려)
- 소감발표(입관체험나누기, 제2의 인생을 위한 각오)

다. 수의를 입으면서, 유언장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삶이 파노라마 처럼 스치고 지났을 것이다. 그리곤 못질을 한다. 캄캄한 관속에서 2~3분 동안 누워 있다. 잠시 후, 관속에서 나오고 그 안에서 느꼈던 소감을 발표했다.

입관체험을 마친 김정순씨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할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순애 할머니는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앞으로는 행복하고 사이좋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서 살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입관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기분, 조금은 이해가 간다.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친구처럼 있지만 두려움의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노년의 나이에 있으니 가까이에 와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으리라. 취재를 하면서 순간순간 나도 나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남은 삶은 어찌 살 것인지를.

아름다운 이별학교는 해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55세 이상 어른신 10명

문의전화 : 031-404-8112



시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리빠'

글 · 사진 | 정현순

숨차게 도착한 그녀가 “많이 기다리셨지요, 갑자기 물건이 와서요.” “웬 물건?” “제가 방글라데시에 컴퓨터부품을 팔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리빠다” 그가 낯선 타국에 와서 무역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대단해 보였다. 삶의 대한 열정이 부럽기까지 했다.

그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시흥시인터넷방송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무역업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뿐 아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열혈 대한민국주부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또 일요일이면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있다.

우리의 민족성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와 보수성향이 강한 편이다. 그런 관계로 외국인들의 한국살이는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글로벌시대 아니던가.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온지 4년이 된 리빠의 시흥살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리빠의 삶은 지금도 이방인으로 느끼고 있을까? 가을이 완연한 날 그를 만났다. 활짝 웃는, 비교적 한국말을 잘하는 그와 반갑게 만났다. 그는 참 명랑하고 밝아보였다.

“남편은 어떻게 만났어요?”



리빠의 모습

“남편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회사에 다녔어요. 남편회사 사장님하고 우리 사촌오빠하고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놀러갔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방글라데시 여자들은 외국 남자와 결혼 잘 안 해요. 종교 때문이지요. 그런데 남편하고 저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슬람교가 아니라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남편이 리빠 많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허락했어요. 지금은 우리사위가 최고라면서 좋아해요. 결혼해서 3년 동안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아기 낳고, 아기가 10개월 때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지금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저와 손녀를 정말 많이 예뻐하세요. 그리고 남편도 가끔 기도(이슬람교)를 같이해요.

“한국말도 배우고 남편이 제가 만들어준 한국음식 맛있다 해요.”

“한국음식 중에 잘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시흥시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말, 한국음식을 배웠어요. 한국음식 중에서는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요. 배추김치만 빼고 다른 김치는 잘해요. 신랑이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해요.” “요즘 리빠는 뭐하고 지내요?” “저 많이많이 바빠요. 컴퓨터부품을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사업도 하고요. 아는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시흥시인터넷방송국에서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방글라데시 여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도 이런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방글라데시에 컴퓨터부품을 수출하는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고 싶은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딸아이(6살) 교육도 잘 시키고 싶고, 운전면허도 따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싶어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살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우리(외국인)들도 많이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복지센터에 자주 가서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는 시흥시인터넷방송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군데의 리포터활동을 했다. ①삼미시장 ②소래산 ③딸아이 생일잔치 ④세계인의 축제라고 한다. 그중에서 소래산 취재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한다. 왜냐고 물었더니 방글라데시에는 산이 없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가본 곳이 바로 소래산이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한다. 리포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환하게 웃는다.

시흥시가 정말 좋아요. 시흥시는 제2의 고향

“한국이 참 좋아요. 냉장고, 에어컨 등 전기시설이 잘 되어있고, 깨끗한 도시, 교통도 편해요. 한국에 처음 와서 여기(시흥)에 살았어요. 남편의 회사가 화성으로 이사를 갔지만 시흥시에 정이 많이 들어 앞으로는 시흥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2년 후,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기를 한명 더 낳을 계획도 있고, 취재원생활도 열심히 하고, 무역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갈 생각이라고 당찬 포부를 말하기도 했다. 그중에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한국친구들도 많이 알면서 시흥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그에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냐고 물었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직은 외국인들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방글라데시 사람 겸어 그러지 말고 평범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마음, 심장 있어요.”라고 말한다.

방글라데시를 가본적은 없지만 밝고 명랑한 그를 만나보니 방글라데시가 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그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며칠 후 둘째오빠와 친정어머니가 리빠의 집에 오신다면서 무척이나 부풀어있는 그다. 그런 그를 보면서 한국 새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껴본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리빠

소산서원 가는 길

글 · 사진 | 정현순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소산서원을 알게 되었고 그곳을 처음 가봤다.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는 늦봄이었다. 주변의 신록과 울긋불긋 피어있는 봄꽃들이 주변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던 곳이었다.

시흥에서 25년을 살면서 너무 늦게 알게 된 소산서원은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소산서원 주변에는 향토유적 3호인 하연선생 묘와 효자정각이 있어 몰랐던 역사공부를 하면서 산책하기도 아주 좋은 곳으로 인상 깊게 자리 잡기도 했었다.

요즘도 어찌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큰 도로변에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나처럼 누군가의 친절하고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니 말이다. 소래산을 등에 업고, 신천동 삼미시장을 지나 인천방향으로 5분~10분 정도 가면 소산서원 입구가 나온다. 입구를 들어서면 1995년에 세워진 ‘하연신도비’가 나온다. 신도비는 신천동 산 12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하연선생의 묘와 하우명 효자정각, 소산서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연선생은 소산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연선생의 아들인 하우명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정각에 도착했다. 효자정각은 조선 전기의 효자 하우명(1413~149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각이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애통하고 상심하여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제수는 반드시 손수 마련하였으며 땀나뭇물 갖는 일도 몸소 하는 등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들었다.

3년 동안의 시모살이를 마친 후에도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영당을 세우고 철따라 나는 새로운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모셨다. 효자정각 앞에서 점점 실종되어가는 효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예전과 같은 효는 바랄 수 없는 일. 그렇다면 현대의 효는 어떤 것일까 하는 등, 효자정각을 지나 소산서원으로 향했다. 하연선생의 제사(齋舍)인 소산재(소산서원)와 사당인 문효사가 있다. 소산서원은 조선 세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명재상 하연 선생의 묘소와 효자정각 사이에 있다.



〈포토그래퍼, 최영숙〉

소산서원 주변을 둘러싼 잘 다듬어진 향나무가 반겨주는 듯하다. 단아하고 깔끔하면서 기품을 잃지 않은 전통한옥집의 소산서원은 1455년(세조 1년)에 소산재로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1963년에 지역 유림과 후손들이 힘을 모아 다시 세웠고, 1995년에 중건하면서 소산서원(蘇山書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는 진양하씨(晉陽河氏) 문효공파 종중에서 소유와 관리를 맡고 있다.

검은 기와로 올린 낮은 돌담장 너머로 한옥의 대청이 보인다. 한지의 창문도 보인다. 아담한 앞마당에 빼죽이 서있는 나무들도 살짝살짝 눈짓을 하고 있다. 사계절 모두 잘 어울리는 한옥, 운치와 멋을 아는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기도 한다. 요즘 소산서원은孝 공부, 서원의 유래, 다례교육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산서원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한다.

하연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 진주(晉州), 자 연량, 호 경재·신희옹, 시호 문효(文孝). 정몽주의 문인. 1396년(태조 5)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봉상시녹사를 거쳐 춘추관 수찬관이 되고, 이어 집의 등을 역임하였다.



① 소산서원 전경

② 하연선생 묘에서 내려다 본 소산서원

세종 즉위 후 예조참판을 지내고, 1423년(세종 5) 대사헌으로서 조계종 등 불교 7종파를 선·교의 2종으로 통합하고 사사 및 사전을 줄일 것을 건의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1451년(문종 1) 문종이 대자암을 중수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숙종 때 진주의 종천서원, 합천의 신천서원에 배향되고, 1454년(단종 2) 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편저로 《경상도지리지》 《진양연고》 등이 있다.

하연 선생은 말단공직으로부터 출사하여 1449년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청백근검의 정신으로 나라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고 1453년 향년 78세로 별세하게 된다.

하연 선생과 하우명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훌륭한 선조들이다. 그동안은 역사 책에 기록된 한 줄의 이름으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산서원을 지나 향토유적 3호인 하연 선생의 묘에 올랐다. 소산서원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연선생의 묘, 그곳에서 내려다본 소산서원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깔끔하고 소박한 우아함이 더욱 돋보였다.

동행한 친구가 “시흥시에 이런 곳도 있었네! 정말 좋다”하며 감탄을 자아내곤 소산서원을 한동안 시야에서 놓지 않은 눈치였다.

난 그가 처음 그곳에 와봤다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시흥의 토박이 남편과 결혼해서 벌써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난 그에게 “정말 처음 와봐?” 하고 물었다. “응, 남편은 와 봤을까?” 한다. 친구의 집에서 불과 20여분 거리도 안 되는데, 어쨌든 친구도 좋아하니 그를 데리고 그곳에 간 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향토유적을 보고, 친구와 지난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시흥이란 곳에 더욱 정이 쌓였다. 머지않아 찾아올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할 때 다시 한 번 와보자고 그와 약속을 하고 그곳을 떠났다.

주말이나 공휴일, 가족끼리 가볍게 길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들에게는 역사공부, 어른들에게는 시흥의 사랑이 쌓여질 것 같다.



효자비 전경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오세요

글 | 정현순, 사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도움을 주는 곳인지 궁금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밑바탕에는 건강한 가정이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만큼이나 가정생활도 예전과는 달리 복잡해지고 있다. 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든 일이기도 하다. 가족구성원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을 터. 그럴 땐 누군가에게 우리가정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때 내 가족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에 개소를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센터 장 외에 6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상담, 가족교육사업, 가족문화사업,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 지역연계사업 등이 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이 겪는 문제의 일시적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개인의 개별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 심리행동(성격문제, 가치관문제, 진로/취업문제, 종교문제, 비행문제, 자살문제, 외도 스트레스 등)
- 사회부적응(직장, 학교, 사회, 친구관계, 은둔형 외톨이 등)
- 건강문제(신체질환 · 발달장애, 조울 · 정신분열 · 공황 · 범 불안 · 강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 약물 · 일 · 도박 · 인터넷게임 · 섹스 · 성형 중독, 사회공포 등)
- 경제문제(수입 · 채무 · 상속 · 재정관리 및 재테크 문제 등)
- 성문제(혼전 성관계, 성 기능장애, 성 정체감문제, 동성애, 성매매, 성병, 자위행위 등)
- 폭력문제(학대,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성 · 근친상간 · 직장 내 · 학교 폭력, 성희롱 성폭력, 자해 등)
- 가족구성원증감(낙태, 중절, 유산, 원치 않는 임신, 출산, 입양 및 파양, 사별, 별거 이혼, 재혼, 가출 및 행방불명, 동거 등)
- 관계갈등(경조사, 부양 · 간병 어려움, 배우자선택, 혼수 · 예단, 가치관차이, 의사소통, 세대 간 차이 등)

그곳을 찾은 날은 마침 3년째 상담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화씨를 만날 수 있었다.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상담 후 상담 전과는 달리 밝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한다.

박성희 센터장은 “건강한 가정은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서적, 심리적 건강도 중요하지요. 하여 이곳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문제야는 없고 문제 가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소중하지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도 해요.

이곳에서 돌보기 힘든 사람들은 좀 더 전문기관에 연계도 시켜주고 있기도 하고요,



전화 상담이나 이곳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정방문상담도 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교육을 신청한 후 다시 취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정말 안타까워요. 결혼예비교육을 꼭 받았으면 해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센터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이곳은 시민들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시흥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곳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는 아버지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았다. 가정의 중심 축을 이루어야 하는 아버지들.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아버지들의 부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달이 아버지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 프로그램 신청문의 031)317-4522~3
- 홈페이지 <http://shcity.familynet.or.kr>

[가족 상담프로그램]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생각해보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함으로써 문제해결방법들을 찾아서 개인과 가족의 성장과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상담지원: 부부, 부모자녀, 고부 등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 비행, 중독, 성, 폭력, 학대, 발달단계 등.

각종검사: 기질검사, 우울증척도, 인성검사 등.

집단프로그램: 지존감 향상, 분노조절, 의사소통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

가족품앗이 사업: 자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놀토·임시휴교·방학 중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선생님을 파견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0세(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시흥시의 모든 가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교서비스 등(가사활동 제외)



패밀리데이 매월 3째 수요일을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사랑 실천의 날 패밀리데이로 진행하여 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 가족헌법제작, 가방만들기, 피자빵만들기, 전통민속놀이, 목공DIY가구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퇴근 후 7시에 사업 시작. 매 회기 평균 15가족 정도가 참여했다.

반반운동 (남성-아버지의 가정과 직장 사이의 조화로운 양립을 돕고자 사진 그림 공모 및 전시회 실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흥시 송운초 김다연 어린이가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수집된 그림 및 사진은 약 200점이고 ①시민의 날 ②시흥시장배 족구대회 ③시흥시장배 배드민턴 대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남성들의 가사노동 및 양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나눔의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가족들이 함께 지은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알토랑 나눔 텃밭이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언제나 사랑과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봄과 같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가족 교육사업] 가족구성원의 가족생애주기에 맞게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형성기 가족교육; 신혼기 부부교육(인고부부로 살아가기) 사위와 장모교육 (장모는 왜 사위에게 씨암탉을 주었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교육(여자만세)
확대기 가족교육, 축소기 가족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

[가족 문화사업]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시간활용을 통해 가족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이해 및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천을 제시. 지원. 놀이노리 가족봉사단,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가족 사랑축, 아동방학문화프로그램, 한 부모가족캠프, 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

[지역연계사업] 지역특성 분석 및 욕구조사 / 군부대연계프로그램

시흥은 지금 마을마다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글 | 윤석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사업명

관할동

1. 1가게 1화분만들기
 - 대야동
2. 맹꽁이 연꽃마을 신문만들기
 - 하상동
3. 순환텃밭으로 생명마을만들기
 - 계수동
4. 신천동 Art Road
 - 신천동
5. 은행지하보도를 마을미술관으로
 - 은행동
6. 저탄소녹색성장 문화거리의 조성
 - 정왕4동
7.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물왕고을 만들기
 - 물왕동
8. 정왕본동 마을이름찾기
 - 정왕본동
9. 함현공원 책읽는 마을만들기
 - 정왕4동
10. 희망의 실개천만들기
 - 장현동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마을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내 마을, 내 지역을 가꿈으로서 시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우리 마을에 사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실시한 1·2차 공모에서는 7개의 마을과 교육사업 3개가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만의 희망마을로 행복을 찾아 희망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정왕본동 마을이름 찾기

정왕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왕동의 역사와 전통을 찾고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정왕본동 마을이름 찾기 사업』을 추진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산과 마을이 없어지면서 사랑, 함줄, 봉우재와 같은 몇몇 자연부락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마을과 지명이 소멸되어 사업명과 구획 명을 마을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주민단지과 원룸단지 등의 명칭 속에는 값싸고 불편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긴 주민들은 배나무, 오동나무골, 높은우물, 평안촌 등 없어진 지명들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애향심 함양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왕본동 마을이름 찾기 사업』을 추진했다.

정왕2지구는 1922년 군자염전의 축조공사시 염부들이 정착한 마을 앞에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힘 있고 활기 넘

치는 마을이라는 뜻을 새로 담아 옛 마을의 이름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오동나무골'로 선정되었다. 60블록은 공모에서 2위로 선정되었지만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부르기 쉬운 이름 '다솜'이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 61블록은 주민선호도 조사결과 1위를 얻은 '군서', 62블록 역시 주민선호도 결과에 따라 '큰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야동 1가게 1화분 가꾸기

대야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시작으로 공구상가 주변 인도에 화분을 설치했다.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희망하는 상가들에 한해 시작한 『1가게 1화분 가꾸기 사업』은 인도 폭이 좁고, 상가 앞에 적재된 물품들로 인해 미관과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리를 걷던 사람들로 하여금 화분을 보면서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선을 사로잡는 거리'로 변신했다. 변해가는 거리를 보면서 반대했던 주민들도 하나 둘 동참하기 시작했고, 사비를 들여 내 가게 앞을 리모델링하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내 가게 앞은 가게의 이미지에 걸맞은 화분이 놓였고, 한 부품가게의 식막했던 창고 외벽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아름다운 벽화 한 점이 탄생되었다. 화분마다 이름표를 달듯 관리자를 표시해 두었는데 《화분지킴이 ●●●》이라고 예쁜 글씨가 쓰여 있지만 화분의 모습만 보아도 어느 가게에서 관리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화분이 제작되었다.



▶정왕4동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거리의 조성

정왕동 영남2단지아파트를 들어서면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글자들 '어린이 환경체험교육 회원모집'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제도 실시' '전통 재래된장 만들기 회원모집 및 장독대 이름 공모' 등 입구에서부터 이곳은 '남다름이 있는 아파트'라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번 사업의 주요 포인트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의 거리를 문화적 모티브로 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려졌던 거리 약 200m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조성하여 녹색성장과 친환경 생활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 등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쓸모 있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디자인되어 재탄생하고 있다.

▶ 물왕동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물왕고를 만들기

우리시의 불거리이며 자랑거리인 물왕저수지 주변에 자리 잡은 물왕마을(물왕1동).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과 물왕저수지 주변의 음식점 업주들이 협력하여 거둬나고 있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물왕고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08년 물왕저수지가 유원지 예정지역으로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저수지 맞은편에 위치한 마을인 물왕마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침체되어가는 분위기를 살리고자,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협의회를 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의 역사, 유래, 전설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들의 삶과 우리시의 불거리이며 자랑거리인 물왕저수지 주변에 자리 잡은 물왕마을,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과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주변의 음식점 업주들이 협력하여 거둬나고 있는 물왕마을에서도 아름다운 거리,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겹지만 단합과 협동이라는 이름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전했다.

마을 입구에는 예술가의 손길이 묻어있는 장승 한 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주민 이춘기님이 처음으로 조각한 장승이라 한다. 남다른 손재주로 멋진 장승도 만들어 냈고, 솟대제작의 전반적인 작업과 마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물왕마을 100배 즐기기」책자도 발행할 예정이다. 2011년도 공모분야는 7회에 거쳐 5개 분야에 공모가 실시되며 마을단위 교육공동체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테마사업(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즐거운 우리동네만들기),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2011년도 희망마을공모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살아있고 사람중심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이 추진된다.

응모자격은 마을단위주민 민간단체, 아파트부녀회, 상인협의회, 학교 운영위원회, 풀뿌리 주민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발적 조직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시흥명소

■ 월곶포구

■ 도일시장

■ 오이도



노을이 아름다운 월곶포구

글 | 박화원

창공과 밝은 태양의 색채가 아름다운 바다는 흔들리는 목선과 뒤따르는 물새 떼들이 시간과 공간을 채워주었다.

월곶포구(月串浦口)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포구.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다. 갯벌일대를 매립하여 역사가 바뀌어가는 곳이다. '월곶'의 '곶'은 바다를 향해 뾰족하게 내민 땅이라고 하며, 육지의 끝부분으로 3면이 물들로 싸여있는 땅을 말한다. 월곶을 통칭 '달월'이라고 부른다.

월곶포구(wolgot port)는 시흥 조선소를 시작으로 포구 여행을 한다면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를 볼 수 있다.

월곶귀항선





조선소 주위는 오래전 나무인 듯 그늘과 마주하고 서있고, 왼쪽 건너편엔 갈대숲이 길을 만들고 있다. 갈대숲 위로 언덕처럼 보이는 다리는 얼마 전 개통된 정왕IC다. 조선소 아래 월곶항의 표시가 보이고 부둣가엔 정박한 선외기와 선내기(엔진이 안에 있는 것)배, 통발배들이 즐비하게 모여 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곳이라 배와의 난간은 높이가 높은 담으로 쌓여 있다. 육지와 가장 가까운 듯 바닷물의 살아 숨쉬는 생명들의 첫 만남은 비릿한 냄새로 진동한다. 새벽에 출항했던 배들은 사리포구(지금은 안산호수공원)를 거쳐 시화호를 지나 월곶으로 입항한다. 배들은 하얀 새배들을 꼬리에 물고 들어와 입항한다. 배위에선 꽃게, 농게, 참게, 조개, 새우를 볼 수 있다. 어부들은 선착장에서 고깃배와 어구(漁具)들을 손질해 놓는다. 바다와 함께한 30년 어업일을 하는 신종현씨는 올해 60세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어업을 이어받아 세명의 딸과 아들을 키워왔죠. 안산 사동과 사리포구에서 시작해 지금은 월곶에서 하고 있죠. 물때가 보통 새벽 4시부터이니 그때 나갑니다. 통발대와 어구를 손질해 놓고 있죠”.

“예전에는 물고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뿔만 차있어 월곶은 힘이 듭니다” 바위석과 같은 검은 얼굴과 골패인 주름들엔 바다와 함께한 인생이 묻어 있었다. 바닷속에 살아 숨쉬는 물과 사람들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함께 겪어 왔다. 바람이 숨막히게 불어온다.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박해놓은 배를 손질하러 간다. 공기를 가슴껏 들이마신다.

선착장 가까이 월곶 중앙로 29번길에는 ‘월곶 종합어시장’ wolgot fish가 있다. 이곳은 먹을거리가 시각과 미각을 즐겁게 해준다. 방파제에서는 자연산 회를 먹거나 자전거를 세워 놓고 앉아 담소를 나누는 낭만도 누릴 수 있다. 해변로 가는 길에 ‘월곶화신수산물시장’이 있고 그 뒤에는 ‘월곶 문화센터’와 ‘월곶 작은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안에는 창가 양쪽으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남자사서가 환하게 맞아준다. 도서관 밖에는 잘 가꾼 정원과 하얀파라솔이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이곳에선 1년에 한번 ‘시흥시 국악 예술 문화단’의 공연이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낮 낚시꾼들의 모습도 보인다.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제주도에서 많이 보았던

하얀 풍력기도 보인다. 건너편엔 '시흥 월곶초등학교' '월곶중학교'가 있다. 계단을 내려와 벤치에 앉아 바다의 선물을 무한히 감상해도 좋다. 해안도로 끝에서 오른쪽으로 는 소래포구와 이어졌다. 다리공사가 한창인 이곳부터는 인천이다.

월곶 중앙로 30번길 안쪽으로는 놀이공원인 마린월드(Marine world)가 있다. 이 놀이공원은 여름만 개장하고 있다. 월곶중앙로에는 시외버스와 일반버스가 많이 다닌다. 안산, 인천, 부천, 서울, 시화, 안양으로 다니는 버스들이다.

낮동안 사물과 친해지는 바다와 물고기들의 물길을 만나보는것. 물과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포구의 역사다. 바다와 사람들의 역사는 침묵하며 회오리바람으로 지나간다. 해질무렵 저녁노을은 배들이 포말을 만들며 들어온다. 실물이 묻어나는 그림자를 실루엣 사진으로 촬영해보면 좋다.

월곶 중앙로 70번길은 모두 고층아파트 단지다. 바닷가엔 텅굴이 있는 집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곳에선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시간 속에서 발전한다는것. 유황색 태양광선이 내리비치는 바다의 저녁노을은 잠시 멈춰서 자연에 감상하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은 4호선 오이도역 하차 1번, 23번, 510번 버스 이용. 7분소요.

① 월곶포구 해변 산책로

② 만선의 기쁨을 안고 월곶항으로 들어오는 어선





3일, 8일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곳 도일시장

글 · 사진 | 윤석경

값도 싸고 신선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고, 넉넉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웃음과 인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진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네! 무슨 일이지? 출퇴근길 아침마다 지나는 길이지만 오늘 따라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한다.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함도 잠시. ‘아! 오늘은 13일, 도일장이 서는 날이구나!’

도일시장은 군자동주민자치센터 주변으로 상점이 많아 평상시도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3일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이 되면 5일에 한번씩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큰 시장이 열린다. 시흥에서 안산으로 이동하는 거모동의 도일시장 도로는 예전부터 사용되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에 도로 폭이 좁은 편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장이 서는 날이면 차량이 서행을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거북이걸음을 하는 도로 사정에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난 사정이 다르다.

‘장날’ 이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흥미로움에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어느새 차량의 창문을 열어 시장구경을 시작한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

없는 것 없이 다 있을 것 같은 값싼 생활용품 만물점, 갈치 고등어 양미리 이름도 잘 모르겠는 생선까지 화물차량 가득 실린 생선차량, 알록달록한 아이들 신발부터 엄동 설한에도 신기만 하면 따뜻해질 것 같은 털신까지 골고루 갖춘 신발가게, 싱싱하고 풍성한 야채상점, 약재상을 옮겨 놓은 듯 수많은 약초 이름을 매달고 있는 약초 차량.....

‘오늘은 사무실에서 연탄난로에 끓일 수 있는 것을 사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장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장소를 찾아 주차를 하고 본격적인 장 구경을 시작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손님이 많지 않아 시장 안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많았지만, 동네 분들이 직접 농사지어 한 보파리씩 가지고 나온 물건들도 꽤 많았다.



올 여름 태풍으로 인해 잡곡이 귀한데 들깨에 녹두며, 콩이며 한 되씩 담아 한 귀통이에서 자리 잡아 팔고 계신 할머니,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를 가지고 나온 아주머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안성맞춤일 것 같은 옷가지를 팔고 있는 아저씨, 양말차량, 줄지은 생선차량 사이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얼굴, 차량 가득 쌓인 생강을 본 순간, 연탄불에 생강을 끓이면 사무실 가득 퍼질 생강향도 좋고, 겨우내 움츠러들 몸도 생각하면 생강차가 좋겠어서 생강을 사기로 결정했다.

작은 바가지는 삼천 원, 큰 바가지는 오천 원이라는 주인장 말씀에 큰 바가지 두 개를 주문하며 “많이 주세요.” 했더니, “별로 남는 것도 없이 싸게 파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손은 벌써 생강더미에서 덩을 얹고 있었다.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으로 생강 한줌을 ‘덤’으로 얻고 나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 가득 고마움에 미소가 지어진다.

흥정하는 사람들의 오가는 말 한마디에서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고, 덩이 오가는 넉넉한 시장인심에서 ‘우리네 삶이 이런 거구나!’ 하며 또 다른 인생 경험을 해본다.

어린 시절의 회상

어린시절, 5일에 한번 오는 장날이 집안에서 치루는 잔칫날보다 더 기다려지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가는 것이 커다란 횡재인 듯 마냥 큰 즐거움이며 설렘이었다.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모락모락 피어나던 뽕얀 김 설임 속의 만두 냄새, 열대과일은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 노란 바나나 속의 하얀 속살의 달콤함, 근방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중국음식점인 ‘우리 집’의 쫄깃한 자장면 맛은 30년 넘게 세월이 흘렀어도 생각만하면 군침이 절로 돈다.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며 약을 팔던 약장수 아저씨, 어린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유행만화가 그려진 신고 싶었던 운동화… …

모든 재화가 풍족한 현실에서 지금의 아이들에게 그 시절 시장의 의미를 설명하면 어린 시절의 나처럼 향수에 젖을 수 있을까 싶다.

서해안의 관광명소 오이도로 오세요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싶어하면서도 막연하게 먼 바다를 생각한다.
그러나 4호선 전철을 타고 오이도역에 내리면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다.

바닷가에 있는 해양도시 오이도는 바다처럼 많은 것을 품고 바다가 그리운 사람들을 언제나 기다린다.

글 · 사진 | 임정훈



시흥의 최서남단 섬 오이도

오이도라는 명칭은 세종실록 121권(1448년)에 처음으로 오질이도(吾叱耳島)라고 표기하였고, 이후 오질애, 옥귀도 등으로 부르다 현재는 오이도로 부른다.

섬 모양이 까마귀의 귀를 닮아서 오이도라고 불렀다는데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인천 재물포에서 중국으로 가다 오이도 서쪽에서 조난을 당하여 오이도에 표류하였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목이 마른 임금님이 물을 청하였는데 이 섬에 사는 어느 어부가 옥으로 만든 그릇에 물을 떠왔다. 이를 본 임금님은 귀가 번쩍 뜨여 그때부터 이 섬을 옥귀도 또는 오끼도라고 불렀다는 말이 전한다.

예전에 오이도는 육지에서 뱃길 4km의 섬이었다. 그곳을 일제는 염전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육로와 연결하였다. 육지가 된 오이도에는 안말을 중심으로 가운데살막, 신포동, 고주리, 배다리, 소래별, 칠호, 뒷막살 등 자연부락이 있었으나 1987년 시화방조제가 생기면서 자연부락이 없어지며 지금의 오이도해양단지로 바뀌었다.

역사 깊은 섬 오이도에는 문화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유물로 패총이 있다. 오이도 패총은 군사기지 주변에서 발굴되었는데 이 패총은 향토사학자들의 노력으로 2002년 4월 선사유적지로 지정되었다.

빨간등대에서 만나요

오이도의 시작은 옥구도에서 부터이다. 옥구도에서 덕섬을 지나 뚝방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은 걷기에 편하고 바닥에 닿는 느낌부터 다르다. 길바닥엔 각종 어패류 그림이 붙어있고 뚝방길 벽은 갈매기와 각종 해산물을 소재로 한 바다 풍경이 그림으로 이어진다.

오이도에 들어서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빨간등대다. 오이도의 명소가 되어버린 빨간등대는 등대라 부르지만 사실 전망대다. 1층에는 낙조하우스라는 매점과 커피전문점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다. 달팽이처럼 된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무수히 많은 낙서들이 자신들의 오이도 방문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낙서를 읽는 재미에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오이도의 작은 포구 선착장에는 어선들이 사이좋게 정박하고 무수한 갈매기 떼들은 어선을 따라 다니며 하늘을 비행한다.

오이도의 뚝방길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며 다정한 노부부의 산책길이다. 또한 복잡한 일상에서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다 내음으로, 아름다운 낙조를 보여주며 피곤한 마음을 달래며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뚝방길 곳곳에는 언제든지 제방테크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있어 자연스럽게 모든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시시때때로 제공하고 있고 해마다 가을에 조가비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다축제가 열린다.

오이도는 바다라는 천혜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 된다. 특히

오이도 갯벌은 밀물과 썰물
간만의 차이가 많아 갯벌체
험을 하기에 좋은 입지조건
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선상 낚시체험, 시화호
기념공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바닷길로 자전거하
이킹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오이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해물이다. 하늘을
온통 노을로 붉게 타오르게 만드는 낙조의 아름다움에 빠져있다 보면 아침에 출항했을 배
들이 속속히 항구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한 포구로 돌아온다. 만선의 기쁨도 함께 담고 돌
아오는 것인가. 작은 어선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특산물이 많은 오이도로 오세요

오이도에서 먹는회는 대부분 자연산이다. 시흥은 양식허가가 나지 않기에 어선이 잡아
오는 생선을 이용하고 있다.

오이도에는 많은 특산물이 있다. 한 해 어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
적인 수산물인 꽃게를 비롯하여 자연산 우럭, 광어, 광어와 비슷하게 생긴 도다리가 있다.
홍어와 가오리 비슷하게 생긴 간재미도 있는데 간재미는 막회나 회무침을 해먹을 수 있으
며, 1~4월에 제 맛을 내는 숭어나 집나간 머느리가 전어굽는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전어
가 있다. 사실 전어는 봄부터 나오는데 가을전어가 더 맛있다고 한다.

오이도의 대표적인 물고기는 망둥어다. 망둥어는 11~12월이 전성기이며 찌개를 끓이면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하며 말려서 간장에 조림을 해먹으면 그 맛 또한 별미다. 특히 선사
시대 패총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듯 이곳은 조개의 산지이기도 하여 바지락, 모시
조개, 굴 등이 있으며, 쭈꾸미, 낙지 등도 오이도에서 맛볼 수 있는 특산물 중 하나이다.

먹거리 풍성한 오이도로 오세요

빨간등대 맞은편에 오이도종합어시장이 있다. 어시장에는 철에 따라 잡아 온 각종 싱
싱한 생선들과 조개류, 젓갈이 있어 구경하는 즐거움까지 더한다. 오이도종합어시장에는
수산물을 팔기도 하지만 직접 고른 생선으로 회를 떠서 어시장 이층으로 올라가서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이도의 먹거리 하면 제일 먼저 칼국수가 떠오른다. 각종 싱싱한 해물을 넣어 끓인 해물칼국수와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칼국수의 맛은 오이도의 대표음식이다. 온통 거리를 조개굽는 냄새로 군침을 돌게 하는 조개구이는, 맛과 조개 굽는 재미를 함께 준다. 마음에 드는 상호 아니면 마음에 드는 가게에 들어가 한자리 차지하고 한손에 면장갑을 끼고 홍합, 굴, 가리비, 동죽, 키조개 등 각종 조개류를 숯불 위에 직접 구워 먹는 조개구이 맛은 참으로 일품이다. 이렇듯 오이도는 맛있는 칼국수,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으며 싱싱한 자연산 회에 매운탕을 즐길 수 있다.

오이도에 또다른 메뉴 하나는 쭈꾸미 철판요리로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고 시원한 연포탕으로 즐길 수도 있다.

건다보면 간혹 중국집, 고기 집도 있어 해산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촌계 맞은편에는 맛있는 찜빵과 만두를 파는 가게가 있어 출출한 허기를 채울 수도 있다.

주변 곳곳엔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낚시가가게가 있고 선착장 주변에는 바다에서 방금 잡아온 생선을 받아 파는 아주머니들에게 즉석에서 회를 떠먹을 수 있고 소라, 조개 등을 팔기도 한다.

오이도!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곳! 싱싱한 해산물이 항상 준비되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 직접 갯벌을 체험하고 낚시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

오이도는 그동안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지금은 서해안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제 오이도는 선사유적지와 해양생태가 잘 보존되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테마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연계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이도를 찾아와 오이도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이도 오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4호선 오이도역 하차-오이도행 버스 이용

좌석버스 : 350번 / 시내버스 : 21, 30-2

●승용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정왕IC - 시화공단 방향으로 좌회전-옥구고가도로-오이도

산책

■ 능내길 4코스 바람길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늪내길 제 4코스

바람길

글 | 원혜림

시흥 늪내길은 이미 제1코스 ‘숲길’ 제2코스 ‘갯골길’ 제3코스 ‘옛길’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미리 다년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현재는 수도권에서 이름난 도보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며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방문하는 명소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걸어보세요.

이번에 개장한 늑내길 제4코스 “바람길”은 총거리 15km에 완주하기까지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옥구공원에서 출발하여 오이도와 정왕동 시내를 돌아서 옥구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만들어졌다.

“바람길”의 주요 코스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출발점인 옥구공원에서 출발하여 하늘거리는 리본을 이정표 삼아 걷다 보면 길가에 만개한 코스모스꽃밭을 지나게 되며 이어서 다양한 새들이 날아와 똥을 눈다하여 이름 붙여진 똥섬을 지나게 된다.

똥섬을 둘러보고 나면 시흥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빨강등대로 유명하고 다양한 해산물과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오이도를 지나게 되며 잠시 후 인공바닷길인 시화방조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기념공원 전망대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생활폐수 등 각종 물을 정화하는 맑은물관리센터를 지나고 옥구천변을 걷다보면 어느덧 국내 최대의 인공녹지인 중앙완충녹지대에 다다르게 된다.

중앙완충녹지대에 시원하게 조성된 메타세콰이어길을 지나면 도심속 아파트 사이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날 수 있고 코스가 끝날 무렵에는 한적하기 그지없고 잔물결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왕호수공원을 감상할 수 있다.

“바람길”은 도심 속에서 찾아낸 걷는 길로서 바다와 산과 도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옥구공원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준비 덕분에 국화, 해바라기, 야생화, 토피어리 등 아름다운 꽃들과 다양한 정원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시흥 늑내길은 이제까지 개장한 제1코스 “숲길” 제2코스 “갯골길” 제3코스 “옛길” 제4코스 “바람길” 이어 향후에도 논과 어우러진 수로를 따라 사시사철 색다름을 담아내는 “물길” 저수지와 더불어 드넓게 펼쳐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보는 “들길” 중앙완충녹지대를 배경으로 조성하는 “하늘길” 등 지속적으로 테마가 있는 도보길을 조성하여 코스를 늘어 나갈 계획이다.



바람길에서 만나는 친구들~♥



죽구공원

오이도와 인접한 섬이었던 곳으로 예전에는 석을주도, 돌주리섬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운다.

2000년 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오르다 보면 민속 생활도구 전시관, 연지방아와 수목원들을 만날 수 있고 정상에 올라서면 인천 앞바다, 시화방조제 대부도 등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들이 식재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공원이며 낙조대에서 바라보는 달은 시흥9경 중 하나다.

덕도(동섬)

옥구도와 오이도 사이에 위치한 작은섬으로 해발고도가 약22m이다.

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이 이섬에 날아와 똥을 많이 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최근에는 동섬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 동섬보다는 덕도, 덕섬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큰섬은 아니지만 시원한 바람을 따라 바닷길을 산책하듯 섬전체를 둘러보면 추억과 함께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오이도

시흥시의 서남쪽 끝에 있는 섬 아닌 섬으로 각종 어패류가 많이 생산되는 관광지이자 신석기시대 패총이 대규모로 발굴되

어 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곳이다.

오이도 해안로에 들어서면 동화 속에서나 나올듯한 빨강등대가 반갑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등대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갯벌내음과 함께 드넓은 서해바다가 펼쳐진다.

시흥9경의 하나인 오이도 낙조는 해질녘 바닷가를 온통 붉게 물들여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화방조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를 잇는 방조제로 길이 11.2km이며 농어촌진흥공사가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6년 반에 걸친공사 끝에 완공했다.

2차선 도로 옆으로 각종 환경행사가 치러지고 마라톤, 자전거, 인라인 등 스포츠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많은물관리센터

정왕동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그리고 축산폐수와 분뇨까지 처리하는 시설이다.

오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환경교육을 위해 학생과 주민들이 견학하 방문하는 곳이다. 방문객을 위해 센터내에 휴게 공간을 조성해 두었다.

중앙완충녹지대

시화공단 조성 후 주거지가 건설되면서 공단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최대의 인공녹지축이다.

1992년부터 조성되었으며 해송과 단풍, 관목이 잘 자라고 있어 그곳에 들어서면 마치 산중 숲길을 걷는 것 같다.

녹지 양측의 바닥길 또한 운동 놀이시설과 학습 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눈으로 마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겉고섬은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심아파트 사이에 조성되어 있으며 코스마다 각자의 고유 이름을 지니고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작은 공원을 만들어낸 길이다.

두박이들을 위한 도심 속 숲길을 쉽게 주변 문화공간과 연결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접근이 쉬운 길이다.

정왕호수공원

호수너머로 파란하늘을 프레임 가득 담아 낼수 있는 이곳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한적하기 그지없다.

햇살 받아 한없이 반짝이는 잔물결이 마을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수변에 나무다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하며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주변 풍경이 마음 또한 넉넉해지는 곳이다.

호수공원 주위에는 코스모스 꽃밭과 해바라기 꽃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 어떤 정원 선보였나

글 | 양수임

경기정원박람회가 '도시 정원을 꿈꾸다'를 주제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흥시 옥구 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공원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설치된 시설물이 철거되는 기본 박람회 방식과 다르게 공원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 설계, 시공되는 리모델링 개념의 박람회로 추진됐다.

공원의 리모델링 측면에서 기존 시설인 옥구정(전망대)을 정비했으며, 실개울정원, 억새원, 한국정원, 플라워카펫, 이벤트화단 등을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박람회장은 모델 정원, 시민정원 등의 전시공간, 판매 및 홍보공간, 이벤트공간으로 구분됐다.

전시공간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델정원,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시민정원 및 참여정원, 대학생이 참여하는 실험정원이 들어섰다.

판매 및 홍보공간에는 기업 및 지자체정책 홍보관과 경기도 우수농특산물·조경자재 판매부스가 운영됐으며 이벤트공간에는 짚풀공예, 솟대만들기 등 '정원소품 만들기'와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상시로 진행됐다.

모델 정원

오브제플랜의 문현주 소장, 아이디얼 가든의 임춘화 대표, 동인조경 마당의 황용득 소장 등 국내 최고의 조경가와 정원 디자이너, 관련 기업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6개의 정원 작품을 선보였다.



숲속의 작은 도서관 모델 정원

지지배배 정원

경기도에서 조성한 '지지배배정원'은 동그란 지구모습의 원형 대나무숲과 원색의 파이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합을 상징하고자 했으며, 시흥시에서 조성한 '마당, 그리고 담 너머 이야기'는 한옥 마당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 시대 우리 마당의 의미를 모던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재해석했다

농협시흥시지부는 '해피어반 키친 가든'을 조성해 편안한 휴식과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잉글리쉬 코티지 스타일의 쉼터를 표현했다. 그린컬처와 에코드림의 작품인 '자연이 숨 쉬는 정원'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만남이 있는 정원을 현무암과 각종 가공석으로 조성했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한 '돌 틈에 핀 꽃' 정원은 돌 틈에 피어나는 꽃처럼 끊이지 않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새소리가 들리는 지지배배 정원

실험 정원

조경 및 원예 관련학과 대학생 및 교수, 졸업생들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실험정원은 이름처럼 독특하면서도 실험적인 정원들로 구성되어, 관습적인 디자인 패턴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들이 참여한 실험정원에는 상명대와 나사렛대에서 참여했다. 상명대 환경자원학과는 조선시대 율타리인 '취병'을 재현했으며, 나사렛대 플라워디자인학과는 가을의 사색정원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환경조형작품을 설치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험 정원

시민 정원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집 앞마당에 만들고 싶었던 자신만의 정원을 공개한 시민정원은 우리 이웃들의 정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마당이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공정원문화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시민, 아마추어 가드너 등이 조성한 시민정원은 시흥시민들이 조성한 DIY정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조경가든대학 학생들의 실습정원으로 구성됐다. 시흥시민이 참여한 시민정원은 9개소가 조성됐으며, 성균관대·신구대학·한경대·농협대학·안산공과대학 등 5개 대학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조경가든대학의 실습정원은 나뭇잎 모양의 공간에 5가지의 테마 정원이 조성됐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정원

참여 정원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LG하우시스, 경동 등 많은 업체에서 나눔 문화를 실현한 8개의 참여정원은 숲속도서관, 숲속 그늘 정원처럼 정원문화박람회장의 색다른 녹색 시설물들과 꽃 조형물 같은 볼거리, 암석원, 월 가든처럼 이색적인 정원들로 꾸며졌다.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참여 정원

오시는길

- 지 하 철 오이도역에서 시내버스 30-2번 이용 동보아파트에서 하차 (도보 10분거리)
안산역에서 하차 99번 버스 환승 후 옥구공원 하차

- 버 스 대야, 신천, 은행동 지역에서 출발시 시내버스 1, 510번 이용 오이도역 하차
30-2번 버스 환승 후 동보아파트에서 하차 (도보 10분 거리)

- 자 가 용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2Km직진

- 문의 전화 시흥시청 공원관리과 310-2413~5

출발하는곳

옥구공원(시흥시 정왕동 2138번지) 관리사무소 앞

먹거리(음식점)

오이도 월곶(회타운 조개구이 칼국수)연음식 테마로드(물왕저수지)

볼거리(주변 관광지)

월곶포구 물왕저수지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교육의 현장

■ 장곡고등학교





세계로 웅비하는 명품인재 육성

글 | 박화원, 사진 | 장곡고등학교

개교10주년을 맞은 장곡고등학교(<http://www.janggok.hs.kr> 김성태교장)는 명문고 도약을 위한 Win Win project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0학년도 시흥시 관내 학교 중 신입생 유치에서 가장 먼저 정원을 넘어섰으며, 중학교 내신 성적 우수입학생도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합격선(컷라인)도 20점 이상 상향되어 전체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 대입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경인교대에 합격하였다.

시흥시는 교육적 여건이 특이하다. 안산시교육청에 편입되었던 시흥시학교들은 교육적 낙후로 우수학생들이 안산으로 빠져나갔다. 지자체인 시흥시청에서 시흥교육청이 자리잡고 2007년부터 관내의 학교에 투자하였다. 명문고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시흥시는 3개의 영역으로 연성지구, 정왕지구, 소래지구로 나누어 지원을 한다. 중학교 21개와 고등학교 15개 학교 중에 비율적으로 많이 들여보낸 학교를 우수교로 지원한다. 학생들이 장곡고에 입학하면 교육시스템을 갖고 학습관리한다.





- ① 명문대 탐방, 고려대학교
- ③ 명사초청 논술특강
- ②, ④, ⑤ 학부모초청 설명회

2011년부터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장곡고는 '2009 개정교육과정선도 학교'로 1년간 접목해서 교육과정의 선진화모형을 실행해내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색다르게 학기 집중제, 블록타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여러개 교과를 묶어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교실 C형 운영교이다. 수준별 수업은 시흥시 관내 유일하게 국어·영어·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6명의 강사가 수업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육활동 평가에서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430개 중에 26개 우수교로 선정하여 2010년 11월 학교 평가 우수교로 선정되었다. 2011학년도에는 과학영재학급이 승인되어 과학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험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과 창의성을 발굴, 창의적 지식 생산 능력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키운다.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장곡고는 체험활동 비중이 크다. 국제 구호 개발 '월드비전'과 결연을 맺어 한 학급당 한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아프리카 어린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해병대 체험학습으로 극기를 체험하고 중국학교와의 자매결연, 방문으로 자부심을 갖는다. 역사관을 만들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학여행, 생명 사랑 걷기 대회를 가져 문화재 탐방과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향토애를 느낀다. 검도부와 배드민턴부의 대회 우승 동아리활동, 웅비제, 글로벌인재 1+2 Dream팀이 있다. 학교엔 숲이 조성되어 있어 Nicofree school, Green school를 만든다.

김성태 교장은 경영방침 5가지를 중점과제라고 하였다.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의 실천' '실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장곡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 고취'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최선의 지원'이 학교경영방침이며,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서로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죠.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느껴온 교육철학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과 믿음, 신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의가 있으면 모든일이 잘 이루어 집니다. 청렴하다고 자부합니다. 청렴해서 신의가 있고, 술선수범해서 권위적행동을 안합니다. 권위적 리더십이 아닌 권한을 위임하는 Empowerment Leadership으로 교장의 권한은 30%만 갖고 나머지 70%는 교감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께 권한을 위임한 것 또 봉사하는 리더십인 Servant Leadership을 합니다. 결재는 교무보조 2명으로 업무 결재를 합니다. 선생님들의 시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어 명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학생들이 학력, 인성을 잘 갖추어 사회에서 가장 환영받는 명품인재로 육성시키는게 최고의 계획입니다. 2013년도엔 시흥시 전체에서 명문고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2015년엔 전국 50권 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어 충분히 목표달성하리라 믿고 있어요.”

강영숙 교무기획부장은 “2009.9.1 교장선생님이 취임하시고 교감선생님과 함께 의식을 바꿔놓았어요. 확고한 신념과 교육관이 뚜렷하십니다. 외형적 권위가 없으시죠. 선생님들이 존경합니다. 행정 보조 요원 2명이 선생님들 일을 돕습니다.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받을 때는 서서 받지 않고 옆에 앉아서 받아요. 기분이 좋죠. 외형적 권위가 없으시고 멋있어요. 선생님들이 존경합니다. 아이들도 방송 조화를 하면 메모할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존경과 로망이에요. 두 분이 굉장한 인격자이시라 학교가 발전합니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이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능동적인 힘을 지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돕고 가르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선생님들과 장곡고의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현장에서 정착하고 세계로 웅비하는 장곡인 육성, 신뢰 받는 으뜸학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생명사랑 걷기 대회



생명사랑 걷기 대회 개회식

현장스케치

■ 어부

■ 연탄을 찾는 이유





어부 오승복의 바다와 함께 한 30년

글 · 사진 | 임정훈

지금 이 사리 때라며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서두르셨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어머니의 젖은 손엔 점심도시락이 들려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늘도 바다로 나가셨다. 오늘, 아버지는 어망 속에 무엇을 담아 오실까?

오복호 선장님

오이도에서 30년째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오승복님의 나이는 83세다. 자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바다로 출근하시는 아버지에게 바다는 삶이 터전이었고 북에 두고 온 고향이다.

바다를 고향처럼 생각하며 살아서일까? 오랫동안 바다 생활이 고생스러웠을 법도 한데 오승복님의 표정은 아이처럼 순박하고 그에 눈은 거짓없이 선량하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법 없어도 살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닐까?

6.25전쟁 중 북에서 배를 타고 큰형을 찾아 내려온 오이도에서 형 대신 오이도 토박이인 아내 박정분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오이도에서만 60여년을 살았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지금의 오이도는 염전이였다. 그는 염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집을 샀고, 1남 3녀의 자녀들을 키웠고 공부시켰다. 그러나 삶의 터전이었던 염전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없어졌고 대신 그곳엔 건물이 들어섰다. 한동안 막막했다. 이제 오이도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때, 누군가 배를 사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였다. 배를 운항해 본적이 없는 그는 고민하였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용기를 내보기로 하였다.

0.9톤의 아주 작은 배였다. 배이름을 오복호라고 지었다. 五福은 좋은거니까. 그 배와 함께 한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좀 더 큰 배로 바뀌라” “새 배를 사라”고 권유했고 세월만큼 배의 고장도 잦아졌지만 수리하고 또 수리하면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몸처럼 아끼며 오복호와 함께 하였다.

30년째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오승복 선생님



말이 없는 바다는 몸으로 읽는다 .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오이도 갯벌은 나가기만 하면 마차에 실어 올만큼 동죽과 바지락이 많았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빨낙지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다. 오이도 주변만 돌아도 굴과 우럭, 광어, 농어, 놀래미 등 각종 생선을 잡을 수 있었다.

시흥은 양식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이도 고깃배가 잡아오는 것은 모두 자연산이다. “이제 바다가 오염되어서 잡을 게 없어 공사한다고 자꾸 바다에 모래를 퍼붓고… ….” 오이도 인근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던 고기를 잡으러 팔미도, 쌍섬, LNG주변까지 간다. 그의 작은 배는 이제 그보다 더 먼 바다까지 가기도 한다.

사람은 등대다

먼바다에서 부부는 꽃게도 잡고 광어, 우럭도 잡고 굴도 판다. 소라껍데기를 이용하여 쭈꾸미도 잡는다. 어망에 소라껍데기를 매달고 있으면 쭈꾸미는 알을 꺼려 소라껍데기속으로 들어간다. 그때, 소라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쭈꾸미를 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바다로 나가면 평상시에 정 좋던 이들 부부는 싸움을 하게 된다. 그들의 싸움의 내용은 대부분 배를 어디에다 정착시킬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편은 “이쪽이 많을 것 같다”, 아내는 “저쪽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남편은 광어를 잡고 싶은데 아내는 굴을 따자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 아내의 선택은 옳았다. 알면서도 오복호 선장인 오승복님은 자신의 생각을 우선 내세운다.

아내가 대자는 곳에서 원하던 것들을 싣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포구로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온통 넓은 바다의 주인이 된 것처럼 배부르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바다는 두려움을 안겨준다. 일기예보를 듣기도 하고 어촌계에서 미리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뜻밖에 바다에서 만나는 예측

할 수 없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

어느날 그날도 변함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기 시작하였다. 서둘러 뱃머리를 오이도로 향하였지만 방향을 잡을 수 없이 배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안개가 걷혔을 때 천만 다행으로 배는 소래포구에 있었다. 배 이름이 오복호라서 었을까? 작은 어선으로 30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니.

“언제까지 하실거예요?”

“뭇?”

“배타고 고기잡는 거요”

“계속해야지...” 참으로 우문이였다.

바다에는 등대가 있다. 등대는 밤바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일을 한다. 세상에는 사람이 등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것으로도 세상에 충분한 빛이 되는 것이다. 마치 어부 오승복님처럼 말이다.



연탄을 말하다

우리는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따뜻한사람이었을까



글, 사진 | 임정훈

팔레스타인 사막에는 로렘나무가 있다. 로렘나무는 사막을 지나는 유목민들에게 낮에는 쉼터가 되어 주고, 밤엔 장작이 되어 불도 쉬이 붙어주고 높은 열을 내어준다. 뿐만 아니라 타오른 불은 쉬이 꺼지지 않고 회색의 재로 남을 때까지 모두 소실한다. 그래서 아침까지 온기로 지낼 수 있도록 유목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이다.

연탄이 있다.

공기구멍이 뚫려있다 하여 구공탄, 구멍탄이라고 부르는 연탄을 본 것은 시골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여 초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이다. 그 이전엔 나무를 이용하여 불을 사용하였다. 결혼 후 서울에 살면서도 연탄을 사용하였으니 아마 연탄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바뀐 80년대 후반까지는 연탄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 기름, 가스, 전기를 사용하므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연탄을 몇 해 전부터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난방 시설이기는 하지만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일반 사무실, 가게 등에서 실내 공기를 훈훈하게 하기 위하여 연탄난로를 주로 사용한다.

고유가시대에 연탄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따뜻함을 안겨준다. 따뜻함을 안겨 주기 위하여 연탄은 하얀 연탄재로 남을 때까지 자신을 아낌없이 태우며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번개탄 하나로 꺼진 연탄을 피우면 주변이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다.

그것뿐인가! 연탄난로 위에 끓고 있는 따뜻한 보리차로 언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으면 어느새 주변엔 군고구마 냄새에 군침이 돈다.

잠자는 시간, 연탄난로 위에 곱 솜을 올려놓으면 밤새 뿌옇게 우러난 사골 국물에 밥 한그릇 말아먹고 나면 겨울아침 추위가 멀리 물러간 듯 하루의 시작이 마음부터 따뜻하다. 어디 곱국 뿐인가

연탄 난로 은근한 불 위에 바래진 속옷, 수건 등을 삶아 햇볕 좋은 날 빨래 줄에 널으면 하얗게 널린 옷가지 등을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경쾌해진다.

추억의 구공탄

긴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연탄불 꺼진 썰렁한 방에 아이들과 이불 덮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 보면 서서히 방바닥에 온기가 찾아들었다. 아이들이 차내버린 이불 다시 덮어주다 내친김에 연탄 불을 갈게 될 때 확 치미는 연탄가스냄새.

연탄을 갈 때마다 맡는 가스냄새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느 땐 온가족 모두 정신을 놓기도 했다. 그 시절엔 연탄가스에 취하면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먹이기도 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탄화기에 옷을 태우거나 난로에 옷을 스쳐 태운 적이 있을 것이다. 예외가 아니어서 친구 사무실이었나 보다. 그즈음 유행하던 벨벳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연탄불에 감각 없이 바짝 엉덩이를 쪼이다 엉덩이 부분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당황하였던 일이 있다.

벨벳자체가 열에 약한 것인지, 원피스 소재에 불에 약한 화학섬유가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인지, 표본실에 청개구리처럼 점점 강해진 불에 익숙해져 옷이 타고 있었던 것을 모른 것인지…….

연탄 난로 위에 노란 양은 도시락을 올려놓으면 노릇 노릇한 누룽지까지 만들어 주던 연탄난로에 대한 추억은 항상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는다.

연탄 같은 삶을 꿈꾸다

사람들은 연탄난로 주변에 모인다.

연탄은 열을 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연통을 만지며 언 손을 녹이고, 난로 앞에서 언 손을 비비기도 한다.

난로에 사람이 모이듯 열정적인 사람 곁엔 사람들이 모인다.

열정은 사람에게 힘이 전도되기 때문이리라.

혼자는 결코 불을 피울 수 없는 연탄

하나가 사라지면서 하나를 소생시키는 연탄

사막의 로템나무처럼

하얀재로 남으면서 다른 누구를 세워주는 연탄



시흥리포트

■ 시화호 해양레저 도시



시화호, 해양관광 중심지로 변모

글 | 원혜림

시화호가 요트체험이 가능한 마리나와 해양레포츠 시설, 수상비행장 등을 갖춘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한다.

시화호 워터컴플렉스 구축방안은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해 서해안을 미래 동북아지역의 관광 및 신 성장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경기도의 야심찬 프로젝트.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서해안 일대 개발계획인 서해안 골드코스트 프로젝트와 안산·시흥·화성 3개시가 추진 중인 시화호 발전계획을 모두 수용한 새로운 개념의 시화호 발전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개시는 송산 그린시티, USKR, 시화 MTV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발전전략과 연계, 시화호를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서해안 거점으로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시화호 워터컴플렉스 구축방안은 2011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1,698억이다. 먼저 2011년에 추진되는 1단계는 신개념 운송수단인 수륙양용버스 도입과, 요트아카데미 건설, 방아머리 마리나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륙양용버스는 송산그린시티와 시화호, MTV를 연결하는 관광 투어용으로 승차인원 50명에 육상속도는 최대 112km, 수상속도는 최대 8.3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종이다. 이 밖에 현재 추진 중인 마리나 계획에 따라 방아머리항에 마리나 시설을 도입하여 시화호 내 해와 외해를 연결하는 요트 중심지 조성방안도 포함돼 있다. 사업비는 총 578억이며 경기도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시화호를 해양레저·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2014년까지 진행될 2단계는 수상생태 탐방로, 철새관광피어를 조성하여 시화호를 친환경적이고 생태친화적인 관광문화시설로 변모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수상생태 탐방로에는 다양한 수상 및 갯벌 동식물 군락지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피어(pier: 수상으로 놓여있는 다리)도 만들어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요트, 윈드서핑, 모터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시설도 조성해 시화호를 해양레저와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총 7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지막 3단계 발전전략은 2016년까지 시화호 인근 대송지구(대송)에 에어파크(Air Park)를 조성하고 시화호에는 수상비행기를 도입하



는 방안과 2020년 수상에코파크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는 수상 지역인 시화호와 육상지역인 대송단지를 연계시키면 이 일대가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상에코파크는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된 화성 USKR, 송산 그린시티 등과 연계된 수상관광지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시 공원과 해상공룡전시장 등이 포함된 친환경 수상공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3단계 발전전략이 완성되는 2020년 후에는 시화호 일대에 해상호텔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조성, 대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1단계 사업인 수륙양용버스와 요트아카데미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분담해 추진하며 방아머리 마리나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시행자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경기도와 관련 시군 공사,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과, 기부채납 방식(BTO)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화 MTV에 조성되는 해양레포츠시설, 송산 그린시티의 수상생태탐방로, 철새관광피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수상에코파크와 에어파크, 수상비행장은 경기도의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송산그린시티와 시화조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부 사업을 구체화 하고,” “시화호를 관할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화호 워터콤플렉스 구축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꼽고 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주요 도시에서 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고 관광시장도 고급화 전문화 세분화



돼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중국 해외 관광객이 1억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는 이러한 중국 관광객을 흡수하고 미래 동북아지역의 관광 및 신성장산업 중심지로서 서해안을 한국형 골드코스트(Gold Coast)로 개발하기 위해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경기만 마리나시설,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송단지 내 Air Complex, 안산 선감동 바다향기 수목원과 바다레저타운, 평택호 관광단지, 경인 아라뱃길 등 10여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화호 인근 개발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관광요소 발굴을 통한 특화한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시화호는 농어촌진흥공사가 1987년 4월부터 1994년 1월 24일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 면적은 43.80km²(1,325만평)이며, 저수량은 332(백만톤)이다. 원래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淡水湖)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사업 주체의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부터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해 죽음의 호수로 불렸다.

더욱이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3년도 못 되어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고, 개발 당시의 담수호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000년 12월 정부의 해수화 확정으로 지금을 철새들의 도래지, 육상 동식물의 서식장소로 변모했다.



어둠을 준비하는 호수

안봉옥

해질녘 찾아든 손그림자
어둠이 가려주는 비밀을 만들 듯
준비하는 놀림이 사뭇 진지하더니
허공을 가르는 낙숫줄이 팽팽하다
탄력을 받은 소리들이 검은 호수 위를
걸는다
수면 위에 널려있는 지상의 것들을
맘껏 휘둘렀을 낙숫줄
해가 솟아 오르자
곤한 아침을 맞는다

크고 작은 빌딩들
목을 길게 빼고 호수를 들여다본다
지나가는 비행기 호기심도 슬쩍 건드
려보던
물오리 떼 빌딩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수다를 떤다

햇살을 키우고 어둠을 매만지며
다정한 이웃을 꿈꾸던 호수
치유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아가리,
흰 거품
울긋울긋 끼워낸다

안봉옥 95년도 열린문학 시등단 / 94년도 제2회 나라사랑 경기도문예공모전 대상 / 08년 제3회 비전 시민대상 문화 예술분야
(주간시흥) / 09년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공로상) 한국예총 / 10년 예술대상 (시흥예총) / 현)한국문인협회 시흥지부 회장

학생 글짓기 공모전



<대상>

단오

시흥신일초등학교 2학년 2반 이수아

단오는 수릿날, 천중일, 단양이라고 불리우며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라 한다.

난 솔직히 단오에 대해 몰랐다. 이번 글짓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오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단오 날에는 남녀노소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즐겁게 노는 날이라 들었다.

여자들은 그네를 뛰고, 창포라는 물에 머리를 감고, 또 창포 뿌리를 비녀삼아 머리에 꽂기도 한다고 한다.

약수터 같은 곳에서 물맞이를 하기도 하며 남자들은 씨름대회를 한다고 한다.

단오에 단 자는 처음이라는 뜻이며 오자는 다섯 오와 발음이 같으므로 단오라고 한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기도 하며 강릉에서는 대관령서낭신을 모셔다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단오날에는 창포에 머리감기,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만들어 붙이고 옛날에는 임금이 단오날 직접 부채를 신하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으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약초 뜯기 등이 있다고 들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수리떡이라고 들었다. 둥근 바퀴 모양의 쭉 떡이다. 옛날에는 단오가 즐겁고 재미있는 명절이었던 것 같다.

헌데 지금은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가는 명절이 되

어가는 것 같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꼭!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싶다. 머릿결이 좋아지고 윤기가 난다하니 기분도 상쾌해질 것 같다. 단오날 먹는 수리떡도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싶다.

나무에 줄을 매달은 그네도 뛰어보고 싶다. 참! 예 전에 식구들이랑 가든에 갔을 때 그 곳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그네를 탄 기억이 난다. 그런 그네를 타는 기분일까? 아님 더욱 신나는 기분일까? 남자들이 하는 씨름도 재미있을 것 같다. 으쌰! 으쌰! 응원도 하고, 그럼 1등은 상으로 소를 줄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소를 상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설레고 신이 난다.

이렇게 신나는 단오를 요즘은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슬픈 일이다.

하지만 단오에 대해서 몰랐던 나도 이번 단오제 글짓기 대회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단오제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거라 믿는다.

<최우수상>

소래산은 우리의 쉼터다

신천초등학교 3학년 3반 강민영

나는 사회과목으로 인해 또 자연환경을 보러 소래산에 갔다. 소래산에 청솔모가 있었다. 난 처음에 청솔모를 보고 동물들도 자연환경을 좋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 소래산의 경치는 아주 좋았다. 날씨가 좋은날에는 정상까지 올라가 경치를 보았다. 그 땐 인천 앞바다도 보이고 서울도 보였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중간까지만 가고 밥을 먹고 내려왔었다. 그 땐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청솔모를 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그리고 소래산에서 본 것은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곳도 보고 새 집도 보고 갈색인 다람쥐도 보았다. 또 잠자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다.

소래산의 돌로 된 길로 가면 재밌는 밧줄타기가 있다. 부모님께서는 안 무섭다고 하셨는데 돌이 울퉁불퉁하여 무서웠다. 또는 소래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많이 오신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났다. “요즘은 연세가 많은 분들도 소래산 경치가 좋으니 힘이 더욱 생기는구나.” 진짜 그렇다면 난 소래산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소래산에서는 특히 내가 아는 친구들을 많이 본다. 난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축복이고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할머니라면 소래산을 즐겨 다니고 싶다. 할머니가 됐을 땐 제일 먼저 소래산에 있는 군인들이 훈련 받는 장소에 가 보고 싶다. 그리고 난 다음은 청솔모를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청솔모가 사라지는 것 같다. 소래산에 간지

오래되어 그런지 청솔모가 많이 없는 것 같았다. 청솔모를 위해서 또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주워야겠다.

난 이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연환경을 사랑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청솔모야, 또는 소래산아!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게 보호해 줄게 난 너희들을 꼭 보호해 줄 거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사랑하는 청솔모야! 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수고 했고, 소래산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자연을 좋게 해주니 수고했어 우리 그럼 나중에 만나 안녕, 난 이런 자연환경에 대한 글짓기를 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최우수상>

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문화재

시흥신일초등학교 5학년 1반 박민정

내가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그 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도읍지를 배우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우리의 문화재는 보존해야 하며 소중한 것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왜 소중한지, 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광개토대왕릉비가 안 좋은 환경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과 중국에게 하찮은 대우를 받으며 그 곳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는 참 슬펐다.

광개토대왕릉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개토대왕릉비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옮겨 놓지 못하고 있다. 어서 빨리 광개토대왕릉비를 비롯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파묻힌 우리나라를 빛내는 또 하나의 문화재가 있다. 지금은 불타 없어져 복구를 하고 있는 남대문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없어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그 당시 남대문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국 곳곳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한탄하며 울고 슬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전에 이웃과 자주 갔던 김포의 장릉이 있다.

그 곳에 널브러져 있는 기왓장들은 하나하나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흙과 돌맹이 사이에 섞여 사람들이 치고 지나가는 그 소중한 기왓장들이 정말 안타까웠다.

지금은 복원해서 기왓장들을 올렸지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과 정반대로 다른 여러 곳에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 전주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축제나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전 등이 있다. 이런 축제 등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문화재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으며 항상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재가 계승되고 보존되어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우리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문화재로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왜구와 서구로 인해 문화재를 많이 약탈당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문화재가 너무 많다.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우리 문화재에 대해 잘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초등부 대상>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여행

잔말초등학교 4학년 6반 신서연

나는 여름방학 때 연꽃의 서식지로 유명한 관곡지에 다녀왔다. 집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곳이라서 나에게 는 친숙한 곳이다.

출발하기 전에 얼음물과 초콜릿, 김밥을 가방에 넣고 얼굴에는 썬 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나서 나와 엄마와 아빠는 자전거 를, 오빠는 인라인을 타고 관곡지로 향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햇살이 따가웠고 온몸에는 땀이 송글 송글 맺히기 시작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다.

길옆으로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가 잡초를 뽑고 계시고, 동네 강아지들은 멍멍멍 시끄럽게 짖어대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초록색이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화단에는 이름표 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여 놓았다. 그 중에서도 키가 작은 금 잔디가 눈에 들어왔고 양중맞은 꽃이 사랑스러웠다.

엄마께서는 “이름도 예쁜데 꽃은 더 예쁘네” 하고 말씀하셨다. 냇물이 지나가는 곳에는 파라솔을 치고 아저씨들의 낚시가 한창 이었는데 재미있어 보여 길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바라보았다.

발길을 재촉하는 성급하신 엄마는 얼른 가자고 하시고 나는 좀 더 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성화에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렸다.

논에는 벼가 제법 많이 자라 있었고 허수아비는 논 한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새가 벌을 서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에 는 잠자리가 어찌나 많은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나와 부딪힐 것 같이 나에게로 날아왔다.

멀리서도 넓은 초록 잎과 연꽃이 관곡지에 다다랐음을 알려 주

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법 많이 자란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쟁반처럼 커다란 연잎을 보았는데 갑자기 우산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잎 사이로 피어오는 연꽃은 천사같이 예뻐다.

주변에 하얀색의 백로 떼들은 산기슭과 물가에서 볼 수 있었고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도 운 좋게 볼 수 있었다.

아빠는 이곳이 물이 맑고 공기도 좋은 청정지역이라 천연기념물인 백로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귀한 새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시흥 관곡지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근과 연잎으로 만든 비누, 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연근은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 건강 웰빙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의 기다림 끝에 연잎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었는데 평소에 먹던 아이스크림 맛보다도 연잎 아이스크림 맛은 최고로 좋았다.

연꽃테마파크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연꽃 씨를 처음 시배한 강희맹 선생의 신도비와 후손들이 살고 계시는 한옥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강희맹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관곡지를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중등부 대상>

시흥하면 떠오르는 효

군서중학교 2학년 4반 이유정

우리 엄마, 아빠는 할머니께 지극정성으로 대하신다. 엄마는 아프시더라도 아빠께서 “할머니댁 가자” 이러면 별떡 일어나서 준비를 하신다. 그리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할머니께 행동한다.

아빠는 일하시다 말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댁에 가신다. 할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신다. 그럴 때마다 우리엄마는 먼저 뛰어가서 할머니를 부축해 드린다.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엄마는 ‘계속 머리가 아프다’ 라는 말을 하셨다. 그런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병원에 아무도 없으니 엄마라도 가서 할머니 곁을 지켜드리라는 내용 이었다.

엄마는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뒤 엄마는 몸살로 인하여 잠시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효도 중요한 것이지만 나는 자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건강해야 효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몸이 아프신 데도 할머니께 달려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하신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때 이북에서 피란을 나오셨다가 외할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외할머니께서 혼자 일곱 남매를 기르시다가 우리 엄마가 2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께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온 정성으로 할머니께 대하시는 것 같다.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신다.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 같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돈, 명예가 없어도 부모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말하신다. 나는 이

말이 어렸을 때는 정말 지겹고 뭘 말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 이제야 엄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갑자기 예전에도 효가 있었는지 궁금하여 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가 살고 있고 있는 시흥에 효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하연선생이다. 하연은 세종 때의 성세에 핵심관료의 한명으로서 임금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그림을 잘 그리던 하연의 아들 하우명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직접 부모님의 영정을 그려 정성껏 모셨는데, 이런 정성을 인정받아 효자로서 국가로부터 정려되는 명예를 얻었다. 조선시대 황금기에 재상을 역임하고, 죽어서도 전설이 된 복 많은 인물 하연의 무덤은 소래산에 자리 잡고 있다. 효자로 소문난 셋째아들 하우명과 그의 후손들은 이곳을 세거지로 삼았다.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인천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시흥시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하연의 부친인 하자중은 정몽주와 절친인 사이였고, 정몽주가 살해당하자 하자중은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게 되었다. 하자중은 관직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그의 자손들은 활발하게 관직에 진출하였다. 하연의 집안에는 효행과 관련하여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하연은 남다른 열정으로 부친인 하자중을 극진하게 모셨다고 한다. 하연은 자식들이 한양에서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양 인근으로 이사하였는데, 이때 도성 안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여 돈의문 밖에 거처를 정하였다고 한다.

하우명의 효자정각은 길거리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심을 자극한다. 나도 언제 지나가다가 살짝 본적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 내가 하연과 효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사하는 동안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고민도 해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효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우리나라가 '효'라는 덕목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우수상>

연꽃 축제

연성초등학교 1학년 1반 김소래

“꼬마야, 이 동네에 살고 있니?” 관광버스에서 내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물어보셨다.

매일 볼 수 있는 연꽃인데 저 아주머니들은 이곳으로 여행을 오시다니 참 신기했다.

나는 여름 방학 숙제로 우리 고장 자랑거리 조사를 했다.

아빠와 함께 가는 연꽃 테마파크는 정말 신났다. 연꽃 종류가 많았다. 신기한 이름도 있었다.

여기저기 피어 있는 연꽃들과 사진도 찍고 동생 남집이랑 자전거도 타고 아빠가 목마도 태워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행복했다.

아빠는 먼저 관곡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시흥시 향토 유적 8호이고 조선 전기의 유명한 관료인 강희맹 선생님이 명나라에서 전당홍 연꽃 씨를 가져다 심은 곳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 재배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강희맹 선생님 묘도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보았다. 아! 그래서 여기 관곡지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이 되기 전에 나 보다 키가 큰 연잎을 보고 싶어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여름이 되어서는 매일 연꽃을 보았다.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엄마와 연꽃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했다. 그리고 연잎 사이에 숨어 있던 개구리를 찾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에는 아저씨들이 연근을 캐고 계신다. 그런데 너무 힘



들어 보였다. 연근 밥을 먹는데 나는 먹기가 힘들었다. 맛도 이상했다. 엄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꼭 참고 먹었다.

연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소중한 연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스럽게 “연꽃테마파크, 관공지는 우리 동네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에는 연꽃테마파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

그 곳에는 무엇이 생길까 궁금하다. 내년에도 예쁜 연꽃테마파크에서 우리 가족은 활짝 웃고 있을 것이다.

내년 연꽃 축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연꽃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연꽃 축제 파이팅!

<최우수상>

현대와 옛이 공존하는 사회

은계중학교 1학년 8반 송한모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하고 신기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맛있는 한옥과 명절에 입는 우리나라의 한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옛 문화들이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새로운 미만 쫓고, 옛 문화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며, 옛 문화의 미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를 보고 우리 옛 문화를 계승할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사회가 발전된 곳은 서울입니다. 그만큼 예전 문화도 찾기 힘든 곳이지요. 그런 곳인 서울에 예전 문화를 넣어 현대사회와 옛 사회를 함께 공존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계승방법은 현대사회와 옛 사회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북촌한옥마을이 존재하듯이 두 문화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미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 속 옛날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을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장승 문화가 사라지게 된 원인이 종교적 문제가 크지만 장승을 그저 아름다운 우리만의 문화로만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문화 그대로 무서운 얼굴보다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즐거운 문화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했듯이 문화계승을 할 수 있고 두 문화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미를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마을이름을 써서 각 마을을 알려주는 방법



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무조건 실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존을 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로 든 것이고, 다른 옛 문화와 현대문화를 공존시켜 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시흥에도 이런 공존의 미를 볼 수 있습니다. 시흥 대야동 소래산에 있는 소래산 마애상에서는 나무 아래로 보이는 현대사회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의 미는 찾아내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존의 미도 우리가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의 미만 쫓고 살아왔으며 뒤에 있는 문화들은 버려두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는 평범하고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던 미와 다른 현대문화와 옛 문화를 통한 미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를 지키면서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은 지금보다 더욱 더 멋있고 다른 나라도 인정할 정도로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문화강좌안내

●전통강좌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시조창	월 10:30~12:00	월 10,000원	박일엽
경기민요	목 13:00~14:30	월 20,000원	문운자
서예 및 사군자	화 10:00~12:00	월 20,000원	전남훈
월미풍물놀이	화 19:00~20:30	월 20,000원	김현희
서도소리	월 12:00~14:00	월 20,000원	박일엽

●음악강좌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기타교실	A반- 수10:00~11:30	월 20,000원	최권열
	B반- 수18:30~20:00		
노래교실	월 10:00~11:30	월 10,000원	이희제
어르신밴드	금 13:00~15:00	월 20,000원	
드럼(성인반)	중급 : 금15:20~16:20 초급 : 금17:30~18:30	월 20,000원	임재희
색소폰	수 19:00~20:00	월 20,000원	남궁기문
쥬마밴드	목10:00~11:30	월 20,000원	최한규

●언어강좌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영 어	월,수14:00~15:30	월 20,000원	최자연
영어동화	금 10:00~12:00	월 20,000원	박정하
일본어	월,수 14:00~15:00	월 20,000원	
중국어	금 10:00~13:00	월 30,000원	유건화

●공예강좌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한지공예	금 10:00~12:00	월 10,000원 (재료비 별도)	신은경
펠트공예	수 10:00~11:30	월 15,000원 (재료비별도)	심혜영
예쁜글씨(POP)	수 10:00~11:30	월 20,000 (재료비별도)	유순희

●건강강좌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요가	월,수 12:00~13:30	월 20,000원	최인숙
발리댄스	월,목 18:30~20:00	월 20,000원	남명선
건강라인댄스	목 11:40~12:40	월 20,000원	박수빈
우리춤	목 14:30~15:30	월 20,000원	이현숙
골프기초	화 14:00~15:00	월 20,000원	황지훈

●어린이 및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기타교실	토 13:30 ~ 14:30(초급) 토 14:40 ~ 15:40(중급)	월 20,000원	최권열
종이접기	토 13:30 ~ 14:30	월 15,000원	이상분
유치부영어	토 11:00 ~ 12:00	월 20,000원	김자근
드럼교실	금 16:30 ~ 17:30	월 20,000원	임재희
예쁜글씨(POP)	금 15:30 ~ 17:00	월 20,000원	
주산 및 암산	토 14:30 ~ 15:30	월 15,000원	김영선
사물놀이	토 16:00 ~ 17:00	월 20,000원	구윤아
어린이 영어	토 16:00 ~ 17:00	월 20,000원	김자근
동화발레	화 17:10 ~ 18:00 목 16:10 ~ 17:00	월 20,000원	김수민
어린이발레	목 17:10 ~ 18:10	월 20,000원	김수민
어린이사고력논술	수 16:00 ~ 17:00	월 20,000원	김보연
이야기타고 역사속으로	토 16:00 ~ 17:00	월 20,000원	김영자



발행일 · 2011년 1월

발행인 · 정상중

발행처 · 시흥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1(조은프라자 4층)

TEL. 317-0827 FAX. 317-0828

기획, 편집 · 디자인아침 435-7200

※이 책은 시흥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